碩士學位論文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연구

-199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2003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閔　元　敬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昌 九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연구

-199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A Study on Subculture Style found in Contemporary Make-up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閔 元 敬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昌 九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연구

-199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A Study on Subculture Style found in Contemporary Make-up

이 論文을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閔 元 敬

閔元敬의 藝術學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2年 12月

審查委員長 백 미숙

審 查 委 員 김 말례

審 查 委 員 이 창구

국문 초록

본 논문은 1990년대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과 과거 1960~1980년대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을 비교 분석하고, 패션 컬렉션에서 표현된 양식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은 세기말적 갈등, 혼돈과 함께 과거를 동경하고 회고하는 과거 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 지향적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 공존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여러 가지 하위문화 스타일 중에서 1960~1980년대에 나타난 모즈(Mods), 히피(Hippie), 록커(Rocker), 스킨헤드(Skin Head), 글램(Glam), 펑크(Punk), 스케이터(Skater), 뉴로맨틱스(New romantics), 퍼브(Perv), 캐주얼(Casual), 레이버(Raver)스타일이 1990년대에는 그런지(Grunge)와 네오히피(Neo-Hippie), 네오 펑크(Neo-Punk), 클럽스타일(Club Style), 드래그(Drag), 밀리터리(Military),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Sports Casual style)로 재해석 되었다.

하위문화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은 과장된 메이크업,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장식적인 메이크업, 미래지향적인 메이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과장된 이미지는 얼굴의 한 부분을 기괴할 정도로 강조한 메이크업을 말하는 것이다.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은 남성이 여성적으로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여성이 남성적으로 강인한 이미지를 표현하는 메이크업을 말한다. 장식적인 메이크업에서는 얼굴과 몸에 직접 그림을 그리는 바디 페인팅과 문신을 포함해서 말한다.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메이크업은 글리터와 펄을 사용하여 기계적인 느낌을 표현했고, 여성스러운 이미지와 암울한 미래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있다.

이상의 메이크업에서 살펴보면 1960~80년대 스타일이 1990년대 메이크업 스타일과 비교해 볼 때 거의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미래적인 이미지가 더해졌다. 1990년대에는 그동안에 유행했던 모든 스타일들이 다시 재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똑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시대적 영향에 의해 색다르게 재해석되고 있다.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의 변화 요인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여러 가지 요소를 혼합한 절충주의 경향을 볼 수 있다.

둘째,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자연주의적인 경향을 들 수 있다.

셋째, 국제화 시대에 따른 에스닉적인 경향을 띄고 있다.

넷째, 에로틱하고 여성미를 강조하는 로맨틱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정상적인 형식을 파괴하는 해체주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째,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이버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다양한 모습들이 혼합된 퓨전(fusion)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세기말적 혼돈과 미래의 기대감이 혼합된 상황 속에서 더욱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은 현대 메이크업에 새로운 시도와 방향을 모색하게 하는 창조적 영감의 한 단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 차

국문 초록

Ⅰ. 서 론 1
1. 연구 목적과 의의 1
2. 연구 범위 및 방법 2

Ⅱ. 하위문화 스타일의 출현 배경과 특성 4
1. 하위문화의 개념 4
2. 하위문화의 생성배경 및 형성요인 6

Ⅲ. 1960~1980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12
1. 시대적 배경 및 스타일 12
1) 1960년대 13
2) 1970년대 21
3) 1980년대 28
2. 메이크업에 나타난 특성 35

Ⅳ. 1990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38
1. 시대적 배경 38
2. 스타일 41
3. 켈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 49
1) 에콜로지 메이크업 50
2) 민속주의 메이크업 54
3) 유희적 메이크업 58
4) 미래적 메이크업 61
5) 세기말적 메이크업 64

Ⅴ. 결 론 69

참 고 문 헌 73

ABSTRACT 78

그 림 목 차

<그림1> 비틀즈 「메이크업과 패션」, p.60. 19
<그림2> Vidal Sasson의 기하학적인 헤어스타일 「메이크업과 패션」, p.59. 19
<그림3> 60년대의 트위기「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p.7. 19
<그림4> 히피풍의 메이크업 「Faces in make up」, p.37. 20
<그림5> 히피스타일 여인
「Fashions of a Decade the 1960s」, p.54. 20
<그림6> 민속적 패턴 「화장문화사」, p.231. 20
<그림7> 우주스타일 메이크업,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p.4. 26
<그림8> 고딕 메이크업,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p.63. 26
<그림9> David Bowie,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p.43 26
<그림10> Glitter make-up,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p.42. 26
<그림11> 펑크 스타일,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p.418. 27
<그림12> 펑크풍 화장, 「Faces in make up」, p.39. 27
<그림13> 펑크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마뀌아주 예술」, p.220. 27
<그림14> 펑크 헤어스타일, 「마뀌아주 예술」, p.222. 27
<그림15> 그레이스 존스(Grace Jones)의 기하학적 헤어스타일,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 p.22. 33
<그림16> 마돈나(Madonna)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1. 33
<그림17> 여성의 속옷을 착용한 뉴로맨틱스 스타일,
『Fashion of a Decade the 1990s』 p.31. 33
<그림18> 남성적 이미지의 Annie (Eurythmics) Lennox,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22. 34
<그림19> 보이조지(Boy George)의 여성스러운 메이크업
www. boygeorge. wo. to 34

<그림20> 퍼브(Perv)스타일의 노출적인 복장,
『Fashion keyword 2.Look · Style』, p.17. 34
<그림21> 그런지 스타일의 패션,
www. usecom21. co. kr 46
<그림22> 로맨틱한 느낌의 네오히피(N대 Hippie) 스타일,
『Vogue Fashion Twentieth Century』, p.169. 46
<그림23> 핑크색 의상을 입은 로맨틱히피(Romantic Hippie) 스타일,
『Vintage Style』, p.154. 46
<그림24> 펑크풍으로 찢어진 청바지,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26. 47
<그림25> 전갈 문양의 어깨 문신, 『Who's who 2002』, p.9. 47
<그림26> 화이트 펄을 이용한 사이버 펑크(Cyber Punk)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헤어, 『Vogue Fashion Twentieth Century』,p.226. 47
<그림27> 기계적인 느낌의 사이버 펑크(Cyber Punk) 스타일,
『Who's who 2002』, p.9. 48
<그림28> 유아적 이미지의 의상, 『Who's who 2002』, p.8. 48
<그림29> 나이트 클럽 스타일, 『Fashion of a Decade the 1990s』, p.31. 48
<그림30> 자연스러운 네오히피(Neo-Hippie) 메이크업
Etro '00 a/w 프레타포르테 52
<그림31> 머리에 꽃 장식한 헤어스타일
Jean Paul Gautier '98 프레타포르테 52
<그림32> 미래적 이미지의 메이크업
Givenchy '97 s/s 오뜨꾸띄르 52
<그림33> 로맨틱한 느낌의 메이크업
Boyd '01 s/s 프레타포르테 53
<그림34> 핑크빛 로맨틱 메이크업
Paul Smith '00 a/w 프레타포르테 53
<그림35> 머리에 꽃을 단 사랑스러운 이미지
Thierry Mugler '99 s/s 프레타포르테 53
<그림36> 일본의 가부키 스타일
Christian Dior '00 a/w 오뜨꾸띄르 56

<그림37> 중국 경극 스타일
John Galliano '98 a/w 프레타포르테 56
<그림38> 아메리카 인디언 스타일
Christian Dior '98 a/w 오뜨꾸띄르 56
<그림39> 클레오파트라를 연상시키는 메이크업
John Galliano '97 a/w 프레타포르테 57
<그림40> 아프리카 원주민 스타일
Christian Dior '00 a/w 오뜨꾸띄르 57
<그림41> 전통 모로코 스타일
Givenchy '97 a/w 프레타포르테 57
<그림42> 유아적인 이미지의 메이크업
Givenchy, '00 f/w 프레타포르테 60
<그림43> 꽃잎을 이용한 사랑스러운 이미지
John Galliano '00 a/w 프레타포르테 60
<그림44> 꼴라쥬메이크업
John Galliano '00 s/s 프레타포르테 60
<그림45> 피카소 그림 같은 메이크업
Christian Dior '00 s/s 오뜨꾸띄르 60
<그림46> 펄 느낌을 강조한 메이크업
Christian Dior '00 a/w 프레타포르테 63
<그림47> 은색 펄을 이용한 미래적인 이미지
Alexander Mcqueen '97 s/s 프레타포르테 63
<그림48> 큐빅을 붙인 미래적인 이미지
Thierry Mugler '97 a/w 오뜨꾸뛰르 63
<그림49> 색의 대비를 이용한 공격적 이미지
Givenchy '97 a/w 오뜨꾸띄르 66
<그림50> 야수와 같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Alexander Mcqueen '97 a/w 프레타포르테 66
<그림51> 괴기감을 형성하는 눈 화장
Christian Dior '01 s/s 오뜨꾸띄르 66

<그림52> 끔찍함을 느끼게 하는 메이크업
John Galliano '00 s/s 프레타포르테 66
<그림53> 괴기스러운 얼굴 이미지
Alexander Mcqueen '96 a/w 프레타포르테 67
<그림54> 모히칸족의 헤어스타일
John Galliano '00 s/s 프레타포르테 67
<그림55> 레이스를 얼굴에 붙인 메이크업
John Galliano '00 s/s 프레타포르테 67
<그림56> 장미 문신의 에로틱한 이미지
Romeo Gigli '96 s/s 프레타포르테 67

Ⅰ. 서 론

1. 연구 목적과 의의

20세기에 들어서 과학 문명의 발달은 그 이전의 어느 시대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여 인간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었다. 경제적인 안정과 함께 예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으며, 그 중 영화 예술은 20세기 들어서 가장 큰 성장을 보여준 분야였다. 특히, 메이크업은 영화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여성생활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생활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다. 메이크업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도구에서부터, 예술적 분야까지 폭넓게 계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분야이다.[1)]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화는 현대인들에게 인간성 상실이라는 어두운 면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전 시대의 절대적 가치와 이념들은 더 이상 인간의 미래를 제시해 주는 이론이 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옛 것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 전반에 걸쳐 복고풍이 불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청소년 소위, 신세대 또는 X세대가 크게 부각됨에 따라 1990년대에 와서 다시 청소년들의 하위문화가 재현되었다.

하위문화는 지배적 문화 혹은 사회의 중심 계층 문화로부터 이탈된 문화를 의미한다. 하위문화는 기성세대에 대한 단순한 이탈 행동, 비행동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되며, 문화의 또 다른 형태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2)] 어디에도 하소연할

1) 김경순 외, 『Make-up II』, 청구문화사, 2000, p.12.
2) 양미경, 「하위문화맥락에서 본 패션형태의 변화1」,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Vol.2 No. 2, 2000, p.6.

곳 없이 스스로, 혹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음악을 즐기고, 함께 술과 춤에 젖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위문화의 항체가 발효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이러한 하위문화 중에서도 1990년대에는 1960년~ 1980년대 스타일을 근원으로 하는 경향을 많이 볼 수 있다. 그 동안 복식 분야에서는 하위문화 스타일의 경향 분석이 활발한데 비해 메이크업에 관한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김현미[3], 양진희[4], 이정아[5], 장미숙[6], 최은지[7] 등에 의해서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이 조금씩 언급되어있는 정도이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1960~80년대의 메이크업 특징을 재조명하고, 1990년대에 나타난 1960~1980년대의 복고 현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과정 속에서 과거와 현재의 메이크업 스타일의 차이점을 알아내고, 원인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하위문화 스타일에 대한 정확한 규명을 통해 현재의 메이크업의 흐름을 이해하고, 앞으로 진행될 메이크업 경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1990년대 스타일을 중심으로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990년대에는 1960~80년대의 하위문화 스타일

---

3) 김현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4)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5) 이정아,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6)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7) 최은지,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연구 범위를 1960~1980년대의 하위문화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알아보고, 1990년대의 하위문화 스타일과 컬렉션에 나타난 스타일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하위 문화의 개념과 하위 문화의 생성 배경 및 형성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Ⅲ장에서는 1960~8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60년대는 모즈(Mods), 히피(Hippie), 록커(Rocker), 스킨헤드(Skin Head)스타일이 있었고, 70년대에는 글램(Glam), 펑크(Punk), 스케이터(Skater)스타일이 있었으며, 1980년대에는 뉴로맨틱스(New romantics), 퍼브(Perv), 캐주얼(Casual), 레이버(Raver) 스타일이 있었다.

Ⅳ장에서는 1990년대의 시대적 배경과 스타일을 분석하고, 1990년대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런지(Grunge)와 네오 히피(Neo-Hippie), 네오 펑크(Neo-Punk), 클럽스타일(Club Style), 드래그(Drag), 밀리터리(Military),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Sports Casual style)이 90년대에 나타난 대표적인 하위문화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하위 문화 스타일의 이론적 연구는 관련 단행본, 문헌 자료, 관련 전문 간행물, 학위 논문 등을 참고하였다. 메이크업에 관한 자료는 관련 문헌, 학위 논문 자료와 함께 패션 잡지와 인터넷에 실린 디자이너의 작품 사진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하고 연구하였다. 패션잡지는 「Collection」, 「Vogue」, 「Elle」 등이 주 대상이 된다.

Ⅱ. 하위문화 스타일의 출현 배경과 특성

1. 하위문화의 개념

하위문화적 형태들과 실천은 이미 자본주의 체제가 발생되기 시작하면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하위문화 형태와 하위문화 연구는 19세기 영국산업자본주의가 창궐하던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은 1920년대에 이르러서였다.[8] 하위문화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주로 청소년문화를 설명하기 위한 틀로서 사용되어왔고, 지배적 문화 혹은 사회의 중심 계층 문화로부터 이탈된 현상이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왔으며, 보다 광범위한 문화내에 위치한 중요하고 특징적인 타협들(negotiation)로 정의된다.[9]

하위문화(subculture)는 계급이나, 성, 세대 등으로 구분되는 커다란 범주속에 속하면서 각기 다른 속성에 의해 구별되는 다양한 소집단들의 독특한 정체성(identity)을 반영하는 문화라고 정의되어지고 있다. 하위문화의 상위개념은 모문화(parent culture)라 할 수 있다. 서구의 하위문화연구의 전통에서 하위문화는 주로 노동계급 문화라고 하는 모문화의 하위범주로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모문화는 반드시 계급에 연관된 것은 아니며 하위문화 개념의 핵심은 하위문화 집단내의 다양한 하위집단이 드러내는 문화적 차별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를테

---

8) Dick hebdige,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Routledge, 1979, p.75. 를 김창남,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 실천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4, p.9.에서 재인용.

9) 박동숙, 『대중 문화의 수용자』 정재철 편, 문화연구이론, 한나래언론문화 연구총서25, 한나래, 1998, p.124.

면, 노동자계급 문화라고 하는 커다란 범주 아래에는 연령층에 따라 청소년 노동집단, 성인노동집단 등의 소집단들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집단들은 노동자계급이라고 하는 성격을 공유하면서 세대라고 하는 변수의 차이에 의해 부분적으로 구별되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10] 하위문화의 존재가 중요한 것은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하위 집단들의 대응이 경제적으로 규정된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구분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사회구성의 다양한 양상(성별, 연령, 인종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11] 하위문화는 지배적인 문화에 대한 다양한 하위집단의 의식적, 무의식적 대응이며 거기에는 어떤 형태로든 하위집단의 욕구와 원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하위문화는 지배문화의 지배 메커니즘(mechanism)과 하위집단의 저항 메커니즘이 일정한 수준에서 타협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12]

하위문화는 부모문화와 지배문화에 저항하면서도 항상 그 문화와 단절하지 못하고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부모세대와 문화적으로는 단절적이지만, 계급적으로는 일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위문화는 항상 중심문화를 이미 상정해 놓고 그 문화에 대한 상징적, 마술적 저항행위를 벌인 것이다. 하위문화는 구체적인 문화 정체성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일상적인 스타일, 행동, 말투 등을 통해 기성 부모세대 문화 혹은 지배계급의 문화에 저항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다.[13]

---

10) 강원선, 앞글, p.7.
11) 김창남,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 실천에 대한 일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4, p.9.
12) Hedge, D., 『Subculture; The Meaning of style』, London & N. Y. Methane을 앞글, p.9에서 재인용.
13) 이동엔, 앞글, pp.221-222.

2. 하위문화의 생성배경 및 형성요인

1) 생성배경

하위문화는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성숙과 분열로부터 산출된 모순적 산물이다. 영국에서 하위문화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불안정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등장했다. 불안정한 사회는 노동계급의 생활 터전을 위협하였고, 부모 세대가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가치관이 붕괴되기에 이르렀다. 하위문화는 노동계층의 생활의 위기와 부모들이 간직했던 전통문화의 정체성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들 자녀들의 불만과 공포와 자유가 담겨진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청년문화' 이다.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 없이 스스로, 혹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음악을 즐기고, 함께 술과 춤에 젖어 여가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하위문화의 항체가 발효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항변이다.

'청년문화'는 두 가지의 문화 형태들에 대한 반발을 통해 생성되었다. 하나는 부모문화(parents culture)이며, 다른 하나는 지배 문화이다. 부모문화와 지배문화는 한 사회 내의 지배적 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같은 지배적 문화의 위치에 있지만, 그것의 억압적 형태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14]

첫째, 노동자계급 하위 청년문화가 같은 노동자계급 출신의 부모문화에 대해 반발하는 점은 그들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전통적인 윤리의식과 규범에 대한 것이었다.[15] 그 시기의 물질적 여유가 없는 청년들은 기름 냄새 나는 청바

14) 이동엔, 『서태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문학과학사, 1994, pp.104-105.
15) 강원선,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33.

지와 티셔츠를 입고 일터나 학교로 쫓기듯 내몰려야 했다. 집에서는 안락하고 화목한 가정 생활 대신 부모 사이의 대립과 파탄 일보 직전의 공동체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회적 재생산과 노동력 충전의 공간이자, 사회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공동의 문화 체계가 뿌리내리는 공간인 가정의 위기, 이러한 위기 속에서 하위문화의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었던 것이다.

둘째, 부르주아 지배문화에 반발하는 점은 경제적, 정치적 착취와 그로 인한 문화적 불평등에 대한 계급적 편견에 대한 것이다.[16] 1950년대 이후 대량 생산 체계가 본 궤도에 오른 자본주의 사회의 가정에는 물질적 풍요가 도래하였다. 그렇지만 생산력의 풍요가 곧바로 분배의 공정성과 사회 환경의 개선으로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다. 부는 불균등 분배라는 자본주의의 예정된 순서로 사회 계층의 이질화를 초래했고, 급기야는 상층 계급과 노동 계급 사이의 심원한 분열을 낳았다.

노동 계급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그와 함께 그들의 눈앞에는 자본주의의 화려한 소비 문화가 이전보다 더욱 활발히 명멸하고 있었다. 때마침 텔레비전 방송 시대가 개막되고 각종 여가(entertainment) 산업이 활황기를 맞이하면서 노동 계급 청소년들의 사회적 자기 표현 욕구는 점차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공적 공간으로서의 문화 산업 - 특히 음반 산업, 패션 산업 등 - 이 사적 공간으로서의 가정의 문화적 재생산 기능을 떠맡게 되었고, 노동 계급 청소년들은 이러한 공적 공간, 즉 대중 문화에서는 용인되지만 지배적인 문화적 신념 체계로부터는 저급하거나 천박한 것으로 취급된 공간을 생산 활동의 장으로 삼게 된다. 이러한 공간은 무언가를 함께 듣고, 비슷한 양식의 옷을 착용함으로써 동질성을 확인하는 곳이었다.[17]

---

16) 이동엔, 앞글, p.106.

이와 같은 사회 구조적 변동, 즉 문화 산업의 빠른 성장과 가정 공동체의 위상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 곳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영국, 특히 노동 계급 청소년들이 거주했던 도시 외곽의 공장 지대였다. 이곳에서 1960년대 초 발흥했던 젊은이들의 집단적 유행 체계인 모드(mod)와 로커(Rocker)가 하위문화의 창세기를 장식하였다.

앞서 설명했듯이, 노동자계급 청년 하위문화는 전후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의 과정에서 자신들의 부모가 간직하고 있던 검열의 윤리의식을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의 부모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새로운 형태의 노동력 착취를 거부하는 움직임 속에서 생겨났다.[18]

딕 헵디지(Dick hebdige)는 「일련의 사회, 경제적 변화를 하위문화 출현의 조건으로 간주한다. 매스미디어의 도래, 가족의 구성과 학교와 작업장 조직에서의 변화들, 노동과 여가의 상대적 지위의 전환, 이러한 모든 것은 노동자계급의 공동체를 파편화 하거나 양극화하는데 기여했으며, 청년문화의 전개는 이러한 양극화 과정의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 청년계급의 지출력의 상대적인 증가, 그 결과로 일어나는 잉여물을 흡수하려는 시장의 형성, 교육시스템의 변화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청년들 사이의 세대의식의 출현에 기여하는 요소들이다.[19]

---

17) 임은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02. pp.12-13.

18) 니콜라스 간햄 외, 『하위문화, 문화, 그리고 계급, 문화, 일상, 대중』 박명진 외 편역, 한나래, 1996, p.216.

19) Dick hebdige, 『subculture, the meaning de style』 ,London: Routledge, 1979, p.60을 이동연, 앞글, p.106에서 재인용.

2) 형성요인

변화의 다양성과 기성문화에 대한 갈등과 투쟁을 추구하며 형성된 청소년 하위문화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그 파생, 형성요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청소년 하위문화의 파생 및 형성요인을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고도의 산업 발전과 대량생산에 의한 소비문화의 탄생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산업발전과 더불어 경제권이 부여된 청소년들은 저렴한 가격의 물품을 구입 할 수 있었으므로 엘리트 층이나 상류층인 기성세대만이 전유할 수 있었던 스타일을 모방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곧 그들만의 확고한 문화집단을 형성하게 된 원동력이 되었다.[20]

둘째, 현대사회의 도시화에 있다. 산업발전의 영향으로 도시지역의 인구밀도가 높아지면서 소외, 사회적 비조직화, 일탈행위, 아노미(anomie)현상[21]과 함께 복잡하고 구조적인 차별화를 이끌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서 청소년 하위문화가 생겨났다.[22] 또한 도시 집중현상은 인간의 이질성, 유동성을 가져 왔으며 복잡한 사회구조내의 구성원은 더욱 소외감, 좌절, 불안, 무관심을 표명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인간성의 상실은 서로의 관심을 끌기 위한 충격가치로 일탈행동의 양상을 드러내게 된다.

---

20) 김민자. 「2차대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Vol.11, No.2, 1987, p.71.

21) 아노미 현상 : 급격한 사회변동 속에서 가치기준이 명확히. 세워지지 않아 생기는 가치혼란 상태.

22) 김형곤, 「뮤직비디오 수용자들의 포스트모던 청소년문화에 대한 현장 기술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38.

셋째, Pop문화의 탄생과 함께 Rock Music의 선풍적 인기라고 볼 수 있다.[23] 서구의 문명에 있어서 Pop Music은 그 특성상의 세대적 요인으로 인하여 Youth Music으로 규정되어지며 젊은이들 특유의 음악으로 이해되어 청소년 문화의 형성과 파급에 새로운 동기를 제공해 주거나 그 문화의 발전에 있어서 매우 고무적인 역할을 해왔다. 2차대전 이후 등장한 청소년 하위문화에는 Pop 문화와 Rock Music의 영향이 있으며 젊은이들은 그들의 음악으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그들만의 풍요로움 속에 일치, 합의를 보게 됨에 따라 청소년 브르조아층을 형성하게 되었고, 사회변천의 중요한 인자로 등장하게 되었다.

넷째, 의무교육의 연장과 여가선용의 증가에 있다. 의무교육의 연장은 교육기회의 증대를 가져왔으며, 이것은 청소년들이 점차 자아와 사회와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자연스럽게 반대의식이 싹트면서 청소년들은 사회상황의 비판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으며, 도덕과 지적인 측면에서 독자적인 젊은이 지향의 문화를 형성시켰다. 그들은 학교에 재학 중에도 주로 part time이나 주말 취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경제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성인들과 성인들의 권위로부터 도망쳐 존재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소를 원했고, 그 결과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Coffee bar, Jazz Club, Dance Hall들이 성업하게 되었다.[24]

다섯째, 청소년들의 비행과 일탈행동에 의해 하위문화가 형성되었다. 청년들은 그들 사이의 풍요함과 독립성의 성장에 따라 의사관철과 반항의 증가를 가져오

---

23) 정해순, 「Pop Music이 현대패션에 미친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pp.7-8.

24) Polly Powell & Lucy Peel, 50 s & 60 s Style, London : The Apple press, 1998, p.42. 강은선, 앞글, p.11에서 재인용.

게 된다. 2차대전후 결손가정의 증가로, 청소년들은 부모세대들의 여러 가치를 거절했으며, 기성세대의 삶의 양식에 도전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여섯째, 하류층 청소년 집단의 노동참여에 있다. 하류층 청소년 계층은 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 진학의 기회를 놓치고 비전문적 직업이나 노동일에 참여하게 되므로 기존의 엘리트층, 중산층, 지식인층에 대한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자 그들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창조하여 신비하며 모호한 사회계층을 형성하고자 하였다.[25]

『Stuart Johnny』의 저자 Rockers 에 따르면 「젊은 노동자 계급들은 그들과 같은 동갑내기들이 대학이나 야간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들은 노동현장에 있었으며, 이러한 노동자 계급의 청소년들은 책임 있는 어른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거부하였다.」 고 지적하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노동자 계급의 하류층 청소년들이 젊은 세대의 새로운 중심을 이루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 청소년들의 성향은 거칠고 반발심이 강하고 도전적인 성향을 지닌 사회적 반항자들이었다.[26]

---

25) 김민자, 「2차대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Vol.11 No.2, 1987, p.71.

26) 강은선,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13.

Ⅲ. 1960~1980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1. 1960~1980년대의 시대적 배경 및 스타일

하위문화에 속한다는 것은 생활양식이나 성, 정치 등에서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체계로부터 자유로워짐을 의미한다.

영국의 역사적 하위문화를 구성했던 다양한 청년문화의 스타일 역시 전후 영국의 지배문화와 부모문화에 대한 사회적 상징행위를 담고 있다.[27] 코헨(Phil Cohen)은 하위문화 스타일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하위체계(subsystem)로 의상, 의식, 은어, 음악을 들었다.

하위문화는 그들만의 지역적, 사회적, 의상적 경계를 한정해줌으로써 독립성을 제공하며, 의복과 신체장식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대한 배타심과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 대한 충성심을 의미하는 하위문화 구성원들의 가장 가시적인 상징으로써, 스타일은 하위문화 정체성의 중심이다.[28]

딕 햅디지(Dick hebdige)는 「하위문화의 스타일은 어떤 의도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스타일은 사회의 검열과 금기를 거부하고 개인의 육체가 욕망하는 자유의 감수성을 위한 것이다. 패션이 육체와 분리될 수 있다면, 스타일은 육체와 분리될 수 없다. 펑크족 스타일의 총합들은 스타일이 갖는 역사적 하위문화를 주도했던 사회에 대한 공격과 좌절과 염려를

---

27) 이동연, 앞글, p.229.

28) Amy de la Haye & Cathie Dingwall, Surfers Soulies Skinheads & Skaters: Subcultural Style from the Forties to the Nineties , London: V&M Museum, 1996, p.3.을 임은혁, 앞글 p.11에서 재인용.

표현한다. 펑크족의 스타일은 그래서 어떤 의도적인 의사소통으로써의 의미를 갖는다. 그 의미는 주류문화의 규범적인 것들에 대한 육체적 저항을 담고 있다. 가령, 도심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청소년 주체들의 그러한 주체형태들의 불만과 사회적 검열에의 거부, 그리고 새로운 자유를 향한 욕망들은 그들의 육체에 각인된 스타일을 통해 드러난다. 하위문화적 스타일은 따라서 일반문화 주체들의 스타일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래서 타인들의 정체성과 차이를 두려는 의도적이고 공공연한 형태들을 띤다. 하위문화 주체들의 스타일은 다른 한편으로는 억압된 내면의식, 사회로부터 차별 당하고 검열된 소외의식에 대한 적극적인 거부행위의 결과이다. 그들의 스타일이 과잉되고 이단적일 수 밖에 없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그들의 삶의 선택, 중심에서 밀려난 소외된 의견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통념을 거부하는 자유의 갈망 등이 애초부터 정상적인 규범체제가 배제하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29]

이제부터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하위문화 스타일의 변천과정을 고찰하여 요약해 보고자 한다.

1) 1960년대

1960년대의 키워드는 젊음, 저항, 변혁에의 요구, 베트남 전, 핵 공포이었으며, 젊은이들은 양차 대전에서 살아남은 기성세대, 기득권 세력에 철저히 대항하며 정치, 경제, 사회 변혁을 요구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으로 공인 받았다. 역사와 문화 사회배경이 다른 만큼 이 모든 젊은이들의 저항운동의 양상과 제목은 달랐지만 그 바탕은 같았다. 1963년 청년 대통령 케네디가 암살

29) 이동연, pp.229-231.

당하고 늙은 아버지 존슨이 그 뒤를 이었고, 그는 베트남 참전을 결정했다. 많은 청년들이 반전운동과 저항운동에 참여했다. 인종 차별 철폐를 부르짖는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 저항운동, 여성에게 부과된 성차별은 여성을 신비화하는 남성위주 문화에서 비롯된 60년대에 싹튼 저항문화의 단면이었다.[30]

도시 집중화, 도시적인 우아함과 퇴폐, 지하철 문화의 지향은 1960년대의 전형적인 것이었다. 민속예술에 대한 주된 관심은 저속하고 통속적인 작품(kitsch) 즉 도시 지역의 팝 포크 아트(Pop Folk Art)로 바뀌었다. 20세기의 예술적 사조가 점점 더 추상적인 경향이 되었던 것처럼 그것과 정반대인 팝 아트는 거짓, 추함 그리고 실제로 존재하는 것보다 비참할 정도의 추한 것을 창출함으로써 사실주의로 방향을 전환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동양의 신비주의에 빠지고 쾌락을 추구하며 마약과 성을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마약문화와 이 시기의 사회 예술 양식을 사이키델릭(Psychedelic) 이라고 불렀다. 사이키델릭한 스타일은 전위적인 패션과 대담하고, 과장된 메이크업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이메이크업은 굉장히 강조하면서 입술 화장은 창백하게 함으로써 상업주의와 인간성 상실에 대한 반대적 견해를 나타내게 되었다.

60년대 후반에는 전반적으로 기하학적이고 인위적인 형태, 상업주의에 대한 반발로 초기의 젊은 열정과 활기가 수그러들게 되면서 만연하는 물질주의에서 이탈하여 새로운 이상을 표출하는 히피의 출현과 함께 많은 젊은이들은 서구의 팽배된 물질 문명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를 전개하면서 메이크업도 극단적이고 기하학적인 표현 대신 전반적으로 부드러워지는 경향을 띄었다. 복숭아 색, 갈색, 회색 등 자연스러운 색상과 함께 이국적 혹은 민속적 패턴이 등장하였다.[31]

---

30) 김경순 외, 『MAKE-UP II』, 청구문화사, 2000, pp.26-27.
31)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24.

(1) 모즈 (Mods)

Mods는 기성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던 하류계층 젊은이들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문화이다. Mods 스타일은 초기에는 왕족의 스타일을 흉내낸 teddy boy스타일이다. 그 후 부분적으로 태운 짧고 부드러운 머리에 말쑥한 백인 이탈리안 라운드 칼라 셔츠에 짧은 Roman 재킷과 접어 올리지 않은 밑단이 최고 17인치인 좁은 바지, 앞이 뾰족한 구두, 안쪽으로 접힌 흰 방수 코트 등이 Mods 스타일이다.[32]

모즈 스타일을 반영하는 의상은 비틀즈 스타일의 남성복이다. 비틀즈는 60년대 남성패션 트렌드를 실질적으로 반영했다. <그림1>

비틀즈가 남긴 최대의 공적은 의식혁명이다. Rock이란 한정된 분야를 뛰어넘어 전세계 젊은이들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비틀즈가 공연에서 보여준 칼라(collar) 없는 슈트에 폭이 좁은 타이를 맨 단정한 스타일은 깔끔한 이미지의 형성을 추구하는 모즈에 있어서는 추종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이 스타일을 비틀즈 룩이라 칭하였으며 그것은 비달 사순(Vidal Sasson)이 디자인한 기하학적 모양의 머리, 만다린 칼라(Mandarin Collar)의 카프탄 슈트(Caftan Suit), 폭이 좁은 넥타이, 앞 부리가 둥근 구두로 구성된 차림새였다.[33] <그림2>

모즈가 보다 나르시슴(narcissism)적인 남성상위를 표현함에 따라 모즈 소녀들은 유니섹스(Unisex)한 차림으로 한층 더 남성적인 모습을 띄게 된다. 모즈의 소년들이 여성화됨에 따라 모즈 소녀들은 점차 남성적으로 되어 갔으며, 모즈 소녀

---

32) 이명진, 「1990년대 남성복에 재현된 모즈 스타일(Mods style)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p.9-11.

33) 강은선,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p.52.

들은 굽이 낮은 신발을 신고 짧은 머리를 하고 볼륨 없는 치마(skirt)를 입었다. 여성적인 곡선미가 배제된 스웨터(sweater)의 착용은 더욱더 남자답게 보이기 위한 노력이었다.[34]

중성적 이미지의 트위기(Twiggy)는 젊음을 상징하는 이 시대의 대표적인 모델로서 인형 같은 인조 속눈썹과 짧고 곧은 직모의 헤어스타일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모즈 소녀들은 모든 수단과 많은 시간을 들여서 스트레이트(straight) 머리를 하고 다녔다. <그림3>

메이크업의 특징은 약간의 핑크 색이 들어있는 피부색에 눈썹은 두껍게 그리거나 아예 밀어버렸고 문신의 유행으로 눈 화장은 아이라이너를 강조하는 아이홀 메이크업을 했다. 눈에는 속눈썹을 아래, 위로 진하게 붙여 눈은 강조하고 볼터치는 핑크빛이 도는 색으로 얼굴 앞쪽을 중심으로 그려서 전체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인상을 표현했다. 입술은 입술 선을 강조하고 흐린 핑크 펄 립스틱을 발라 윤곽선만을 뚜렷하게 만들어 육감적인 입술로 연출하였다.

이와 같은 화장형태는 젊음에 대한 찬미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소녀들의 새로운 유행을 표현하게 되었다.[35]

(2) 히피 (Hippie)

Hippie 스타일은 젊은이들 사이에서 기존사회에 대한 물질주의, 상업주의, 비인간화, 획일화를 거부하고 사랑과 자유를 추구하는 히피 문화의 영향으로 나타난 스타일이다. 히피는 미국학생의 반문화(Counterculture) 운동에서, 그리고 1960년 대 베트남전의 학생교내폭동에서 근거된 것으로 소비주의, 상업주의, 고

34) Barnes Richard, 『Mods』, London: Plexus, 1991, p.16, 강은선, 앞글 p.52.에서 재인용.
35)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p.56.

도의 기술주의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돌아가기를 희구하는 움직임이다. 현대의 물질문명에 환멸을 느끼고 삶의 방법을 자연에서 추구한 히피는 현실과 이념 모순의 갈등에서 사이키델릭한 음악과 소울 댄스(soul dance)에 몰두하고 LSD를 사용하였다.[36] 「히피문화는 낡고 추례한 중고의류를 통해 물질적 풍요를 공공연히 비난하고, 좀 더 상위의 진실을 찾으려고 했다.」 고 언급했다.[37]

60년대는 하위문화의 특수성이 부각된 시기로, 히피문화의 출현은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미의식에 대한 반항과 도구의 의미로써 메이크업을 사용하였다.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메이크업이 아니라 정신문화의 상징적인 표출로서 메이크업의 개념 자체를 해체하였다. 몸에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채색하는 바디 페인팅이 유행하였고, 환각을 일으키는 사이키델릭(psychedelic)한 요소를 패션에 도입시켜 남녀 모두 머리를 길게 기르고 쇠사슬과 종을 달고 꽃을 장식한 히피 룩을 보여주었다. 사이키델릭 룩은 피코크 혁명(Peacock Revolution)[38]의 영향으로 화려한 컬러 시대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핑크, 그린, 퍼플로 염색된 각양 각색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보편성이 없이 특수성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자의 개성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가면과 같은 장식적인 메이크업이 등장하여 새, 동물, 나비 등의 형상을 인위적으로 장식하였다. 예를 들면, 긴 속눈썹이 트레이드 마크인 모델 트위기(Twiggy)는 흰색의 아이새도우와 한쪽 눈에 옷의 문양과 같은 꽃 문양을 그려 컬트한 이미지를 연출하기도 하였다.[39] <그림4>

---

36) 박선빈, 「히피 패션이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10.

37) Glynn, Prudence , Inn 『Fashion』 London : George Allen & Urwin,, 1978, p.97을 박선빈, 윗글, p.17에서 재인용.

38) 피코크 혁명(Peacock Revolution): 공작의 수컷이 암컷보다 화려한 것처럼 미래는 남성복이 더 화려해질 것이라는 이론.

39) 김현미, 「현대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청주대학교, 2000, p.34.

Hippie 패션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끝이 너덜너덜하게 낡은 블루진, 긴 케이프, 아메리카 인디언이 입는 술과 끈이 달린 튜닉, 짧은 로브, 그리고 인도의 자수장식으로 수놓은 셔츠 또는 오버 블라우스, 아프칸 스타일의 재킷이나 안에 털을 붙인 망또, 평화를 상징하는 꽃을 모티브로 하는 소재나, 꽃 장식, 온갖 종류의 목걸이와 팔찌를 장식하는 등 에스닉 패션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로 히피 패션을 연출하였다.[40] <그림5>

이와 같이 60년대는 히피족의 자연스런 분위기와 인위적이며 극단적이고 기하학적인 분위기의 대립적인 양상과 함께 비주류 문화가 수용된 시기로 탈 구성적이고 탈 중심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징은 메이크업과 복식에 동시에 반영되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상호 관련성을 지녔다. 히피의 메이크업은 인디언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소외되었던 문화들이 새로운 미의식에 수용되어진 것으로, 하나의 중심에서 이탈되어 열린 사회로 나아가는 탈 중심화 현상이라 볼 수 있다.[41] <그림6>

(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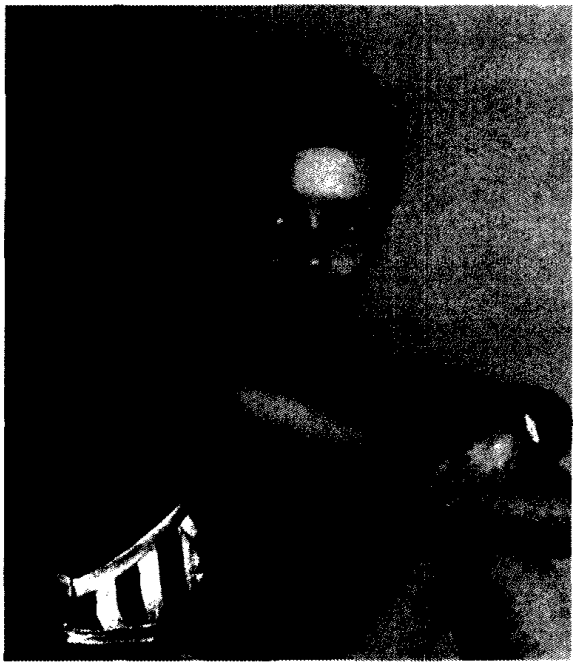
1950년대 중반 로큰롤의 인기와 함께 나타난 록커(Rocker)와 [42] 주위의 중산계층 스타일이나 히피풍 패션에 대한 반발로서 노동자 계급에서 일어난 난폭하고 폭력적인 스킨헤드(Skin Head)가 있었다.[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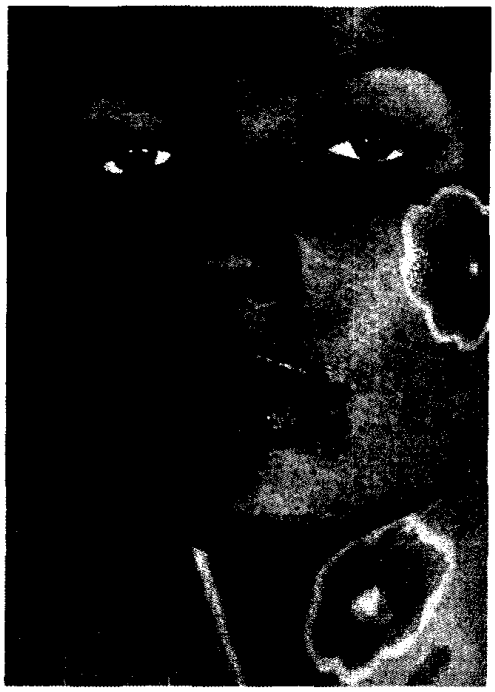
40) 박선빈, 「히피 패션이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p.17.
41) 김희숙,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p.231.
42) 이명진, 윗글, pp.7~8.
43) 강은선,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산업대학원,석사학위논문1995, p.25.

<그림1> 비틀즈 『메이크업과 패션』,p.60

<그림2> Vidal Sasson의 기하학적인 헤어스타일 「메이크업과 패션」, p.59.



<그림3> 60년대의 트위기「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p.7.



<그림4> 히피풍의 메이크업
「Faces in make up」, p.37.

<그림5> 히피 스타일 여인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p.54

<그림6> 민속적 패턴의 화장 화장문화사 p.231

2) 1970년대

1960년대가 격동적이고 낙천적이며 혁신에 찬 시대였다면, 1970년대는 마법에서 각성한 듯한 느낌과 불황, 부정적인 기분을 가졌고, 울부짖는 파괴적인 혼란을 일으켰다. 1970년대는 무엇보다 전후에 물자 귀한 줄 모르고 성장해서, 흥청망청해진 세계인들이 좌절을 맛 본 시대로 기록된다. 2차 대전 후의 세계 경제는 자원, 에너지의 과잉 시대였다. 그 원천은 산업문명의 혈액인 석유의 풍요였다. 1940년대와 50년대에 걸쳐 중동에서 대 유전이 속속 발전됨으로써 석유가 과잉 공급되고, 가격이 형편없이 떨어졌다. 석유과잉은 이를 바탕으로 한 공산품 전반의 과잉을 불러와 값 싼 석유를 강물처럼 마구 퍼 써도 되는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1973년에 제동이 걸렸다. 아랍 석유 수출기구(OPEC)가 이스라엘 동맹들에게 석유 금수조치를 단행하고 가격을 몇 달 만에 200%를 올려버린 것이다. 문명이 마비될 지경이었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인플레 사태가 빚어졌다. 사람들은 자신들 삶의 터전인 자연과 환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44] 1970년대 영국의 젊은이들은 많은 인구 비중을 차지했는데, 두 차례의 석유파동과 인플레이션으로 경제적 불황 속에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게 되자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좌절과 사회에 대한 반항의식이 생기게 되었고 미국과 영국 등지의 젊은이들은 월남전에 대한 반전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배경은 펑크족이 나타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들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인상을 찌푸리게 만드는 혐오스럽고 위협적인 외모로써 그들의 의식을 대변했다.[45]

---

44) 김경순 외, 앞글, p.38.
45) 천지연 외, 『FACES IN MAKE UP』, 2001, pp.36-38.

(1) 글램 (Glam)

글램 록 (Glam Rock)이란 1970년대에 비틀즈의 해체와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히피 운동의 일시적 유행 후 영국에서 마크 볼란(Marc Bolan)과 데이비드 보위(David Bowie)를 선두로 뉴욕 돌스(New York Dolls), 록시 뮤직(Roxy Music), 이기 팝(Iggy Pop)과 같은 가수들의 실험적인 음악장르를 말한다.[46] 영국에서 시도된 글램 록에서 나온 글램 스타일은 양성애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와 도발적인 화장, 괴상한 색상의 머리염색과 화려하고 번쩍이는 공상영화의 의상과 같은 복식으로 전통적인 성에 대한 한계에 도전하였다. <그림7> 이는 뉴 로맨틱, 고트 등의 집단으로 계승되어 개인적 정체감각의 표현을 위한 스타일로서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였다. 고트 스타일(Gothic style)[47]로 퇴폐적이면서 냉정하고 인위적인 도시감각이 표현되었다. <그림8>

글램은 성의 텍스트를 서로 교차시킴으로써 성에 대한 관념을 해체하고, 성의 의미를 무한히 확장한 상호 텍스트성을 가지고 있으며, 하위문화 패션과 하이 패션이 서로 영향을 받아 표현되는 탈 중심적 특성도 나타내고있다.[48]

글램 록 가수 중 데이비드 보위는 앨범 스페이스 오디티(space oddities: 1970), 지기 스타더스트(Ziggy Stardust; 1972) 등의 가상의 페르소나(persona)를 이용하여 우주인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특히 가상 인물인 지기 스타더스트를 자칭한 그는 무대 위에서 과장된 어깨 패드, 글리터 소재의 슈트, 금방이라도 기상할 듯한 깃털장식, 화려한 메이크업 등의 기괴한 외형과 극적인 행위로 낯선 우주인을 독특한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였다.[49] 그 중에서도 1970년대에 들어

---

46) 김은아, 「글램 스타일의 디자인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9001, p.5.
47) 고트 스타일(Gothic style):괴기스러운 스타일
48) 김현미, 앞글, p.39.
49) 김은아, 앞글, p.6.

서는 음악적 정교함보다는 화장을 하고 터무니없게도 여성 의상을 입고 나오는 등 외모나 태도를 중시하는 글램 록(Glam rock)이 주목받게 되었다.[50]

데이비드 보위는 트렌디한 모즈 패션에서 남성의 진한 립스틱, 얼굴 전체를 감싸 듯한 볼 터치, 파란색의 눈 화장 등의 메이크업을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가부키 스타 토마스 보로(Tomas Bolo)로부터 얼굴 전체가 마치 팬터마임에 나오는 배우들처럼 하얗게 화장하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 글램 록 가수들의 특징이 되었다. 이렇듯 글램 록은 일본의 민속 풍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이러한 경향의 디자인들이 컬렉션에 등장하였기 때문에 이를 재패니즈 포크 스타일이라 명명하였다. <그림9>

현란하고 어스름한 머리 염색과 진동하는 듯한 메이크업은 근본적으로 남성미를 재고하게 했다. 그 외의 왕성한 활동을 하던 남성 가수들은 자신들의 극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하여 여성들만이 착용하던 스커트, 짙은 메이크업, 화려한 장신구, 여성들이 사용하는 소품과 긴 머리 모양을 하고 여성적인 제스처로 표현하였다. <그림10>

그 반면에 여성 연주자들은 남성적인 짧은 머리 스타일에 짙은 눈썹과 아이라인만으로 눈을 강조하고 짙은 색의 립스틱으로 장식이 없는 심플한 팬츠 투피스나 광택이 있는 재킷과 팬츠, 모자, 지팡이, 남성적인 악기 등과 저 채도, 저 명도의 거칠고 투박한 직물, 스트라이프 혹은 체크무늬, 가죽의 소재 그 외의 짧은 머리 모양과 노 메이크업 등을 통해 도구적 특성을 부각시켰다.[51]

---

50) 김은아, 앞글, p.11.
51) 김은아, 앞글, pp.19-21

(2) 펑크 (Punk)

펑크 패션은 1976년 런던 록 밴드의 무대의상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펑크는 초기 록 뮤직의 사운드와 스캔다러스(Scandalous)한 가사, 안전핀이나 면도날을 액세서리로 하며 가죽 점퍼와 같은 위협적인 복장으로 알려져 있다.[52] 70년대는 젊은이들이 전쟁에 대한 방황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 반전운동으로 펑크(Punk)가 탄생하였다. 런던의 과격하고도 도전적인 젊은이들은 사회적 욕구 불만과 반항 등의 가학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현상으로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옷차림과 메이크업을 창안해냈다. 이태리 보그(Vogue)지에 실린 모델 헬무트 뉴턴(Helmut Newton)은 야한 핏빛 립스틱과 붉은색과 긴 손톱, 검게 칠한 아이메이크업과 인조유방으로 성적으로 폭력적이고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하였다.[53] <그림11>

펑크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얼굴은 창백하게 흰색으로 화장하고 검정계열의 아이새도우를 사용하여, 눈 주위를 검게 칠하거나 점 문양을 찍기도 하였다. 펑크족들은 눈언저리를 멍든 모습으로 그리거나 눈 주위에 검은 웅덩이 모양으로 선을 여럿 두르고 눈 꼬리는 날카로운 방추형으로 그리는 드라큘라형 화장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검정색으로 입술을 칠하는 것으로 외관상 문명 파괴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들에게 있어 검정 색은 죽음, 절망, 공포, 공허를 의미하며 허무주의, 히스테리, 폭력, 그리고 성혼용의 뜻도 담고 있다.[54] <그림12> 그리고 혐오스러운 문신과 함께 불쾌감을 주는 장신구를 착용하였다.

펑크족은 그들의 머리를 불규칙한 길이로 뾰족하게 한 다음, 빳빳이 고정하여 머리에 뿔이 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또는 머리 양쪽 측면을 극도로 짧게 자르

---

52) 엄소희,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p.28.
53) 김현미, 앞글, p.38.
54) 『New wave Fashion』, 월간 멋, 1987, p.236.

거나 면도를 하고 앞 이마부터 뒤 목덜미까지 넓은 부채모양으로 잘라 수탉의 벼슬처럼 꼿꼿이 세운 모히칸족 헤어 스타일을 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손가락을 기름에 한번 담구었다가 머리를 꼬아서 곤두세우는 폭발하는 듯한 모양의 스파이크 헤어(Spike Hair)도 나타났다.[55] <그림13>

이와 같이 펑크들은 머리를 분홍색, 오렌지색, 초록색의 형광물감으로 물들이기도 했는데, 이것은 전통 오페라에서는 죽은 사람을 상징하는 과장하는 듯 한 지나친 표백이지만 펑크족에게는 젊은이들의 가장 순수한 생명력의 상징으로, 혹은 가장 커다란 가능성의 상징으로 쓰였다.[56] <그림14>

(3) 기타

스케이팅을 취미로 하는 집단으로서 미국에서는 고무와 PVC로 된 의상을, 영국에서는 두꺼운 울로 만든 셔츠와 검은색의 옷을 착용하였던 스케이터(Skater)가 있었다.

---

55) 김영인, 이윤정, 「히피, 펑크와 네오 히피, 네오 펑크의 비교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994, p.264.

56) 『New wave Fashion』, 월간 멋, 1987, p.2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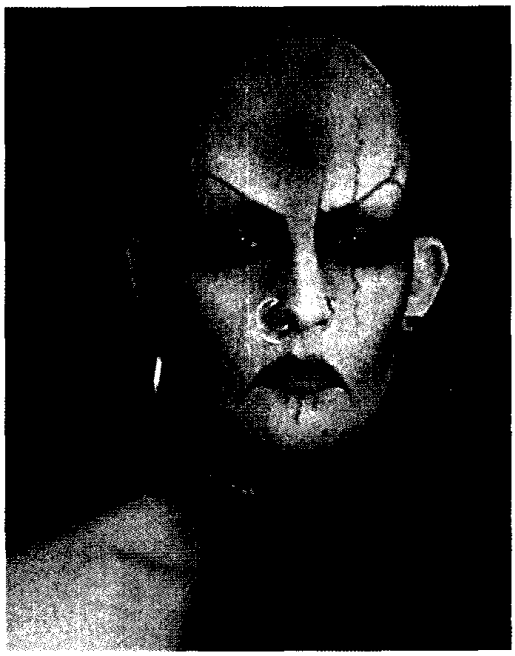
<그림7> 우주스타일 메이크업,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p.4.

<그림8> 고트 스타일 메이크업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p.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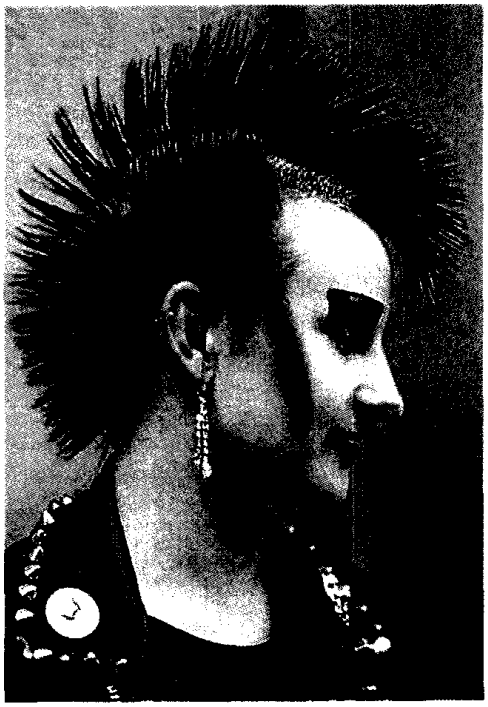
<그림9> David bowie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p.43

<그림10> Glitter make up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p.42

<그림11> 펑크 스타일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1900-1999), p.418



<그림12> 펑크 풍 화장
Faces in make up, p.39



<그림13> Punk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마뀌아주 예술, p.220

<그림14> Punk 헤어스타일,
마뀌아주 예술, p.222

3) 1980년대

1980년대는 정보화 사회의 도입부였다. 콜롬비아호가 우주를 왕복하고 돌아온 81년 IBM은 퍼스널 컴퓨터를 사람들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사람들은 이것을 전자혁명이라 불렀다. 8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퍼스널 컴퓨터는 세계를 전자 네트워크로 재구성했다. 라디오, 전화, 텔레비전, 팩스에 이은 정보혁명으로 인간들을 과거 어느때보다 강력하고 밀접하게 연결시키며 생활 패턴들을 바꿔 나갔다. 1980년대는 생활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였다. 1980년대 초는 쾌락주의의 영향으로 매우 관능적인 스타일을 선호하게 되었고, 성적인 매력을 가졌으며 어린 Brooke Shields 같은 여배우가 80년대의 룩으로 대표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부터는 예술과 문화에 있어서 다원화의 양상이 나타나는데, 패션과 미용분야도 다양화되고 개성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 중의 하나가 성의 구별을 뛰어넘어 인간을 하나의 개성적인 존재로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인데, 컬쳐 클럽(Culture Club)의 보이 조지(Boy George), 프린스(Prince)같은 가수들은 여성 못지 않은 화려한 색채 화장을 하였고 반대로 일부 여성들은 남성의 강한 분위기를 나타냈다. 또한 1980년대 세계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으로 상징되어온 동서 냉전체제가 무너지고 일본의 경제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중국이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세계의 이목은 동양으로 집중되었고 이로 인해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한 재패니즈 룩과 동양과 서양의 스타일이 조합된 절충주의 룩이 선을 보였다. 또한,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중요시하면서 스포츠 웨어가 발달하고 에어로빅과 그을린 어두운 톤의 피부색이 유행하는 등, 건강하고 강인한 아름다움이 이상적인 여성의 미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체형미 대회가 여성들에게도 열렸고 글래머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생기면서, 화려하고 진한 화장이 유행하게 된 때도 20세기 전반과는 달리 남성에게 잘 보이기 위한 화장이기보다는 여성 자신의 내적인 만족감을 위한 경향이 커졌다. 운동선수인 그레이스 존스(Grace Jones)는 기하학적인 머리스타일을 만들어서 남성적인 느낌을 나타내기도 했고, <그림15> 가수 마돈나도 운동으로 근육을 만들어서 건장한 남성의 몸처럼 드러내기도 하였다. <그림16> 그리고 30대가 된 전후 베이비 붐 세대들은 일반직과 전문직 등, 다양한 직종의 분야에서 남성들과 경쟁하면서 강하고 능력있는 이미지로 보이기 위해 옷도 쟈켓에 패드를 강하게 넣어 어깨를 강조하는가 하면 눈썹도 두껍고 진하게 그리고 입술도 선명하게 그렸다.[57]

(1) 뉴 로맨틱스 (New Romantics)

뉴 로맨틱스는 글램의 영향을 받아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런던에서 등장한 하위문화로서 연극에서 사용된 의복을 수용하는 새로운 클럽과 잡지들이 생겨나면서 시작되었다. 이는 글램 록의 퇴폐적이고 유미적인 분위기와 펑크의 경박하고 쾌활한 분위기를 차용한 것이다. 1977년 글램을 추종하던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 문화의 젊은이들은 뉴웨이브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회를 얻었는데 이를 뉴 로맨틱스 운동이라고 한다. 이들의 스타일은 펑크와의 분리를 선언하고, 상상의, 비실용적인, 화려한 과거보다는 미래를 향한 도피주의에 초점을 맞춘 절충주의적 성격을 띄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뉴 로맨틱스는 런던의 클럽 문화를 넘어 음악 산업에 정착하였다. 이들의 근거지는 'Gossips' 라는 클럽으로 이 클럽에서는 여장을 한 남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고, 동성애자건 이성애자건 남성

57) 천지연외,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P40.

이 복장도착(transvestism)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17> 뉴 로맨틱스는 메이크업에서 라이프 스타일까지 이상하고 기이하게 보이는 것을 주제로 삼아 충격을 주었다. 이 클럽들은 게이 문화를 받아들였고,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을 배출하였다.

대표적인 그룹으로는 Culture Club, Duran Duran, Adam and The Ants, Bow Wow Wow 등이 있으며 이들의 뮤직비디오는 MTV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끌면서 비틀즈 이후 영국의 음악이 미국에서 성공을 거두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은 헤어스타일로 기하학적 머리형, 나선형이나 쐐기모양의 머리모양, 과산화수소로 표백한 벌통형 모양 등 거대한 성 혼합의 상징물들을 계속해서 창조시켰다. <그림18> 또한 메이크업에서는 게이샤 같이 얼굴을 희게하고, 눈썹을 밀어버리고, 입술을 붉게 하는 스타일이 나왔다. 프릴 달린 셔츠, 골드 브레이드로 장식된 재킷과 스코틀랜드의 킬트 등은 현대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 중 하나인 성에 대한 공격이었다. 특히 여성적인 나약한 성격에 교태가 넘치는 몸짓과 말소리, 지나칠 정도로 여성스러운 복식을 착용한 Boy George 의 모습은 사회적인 위계질서의 혼란을 일으킬 정도로 성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의 개성으로까지 확대되어 그의 '여자 같음'은 신세대들의 모호한 성적 징표가 되었다.[58] <그림19>

(2) 퍼브 (Perv)

'pervy'란 말은 'perverty(성욕 도착자)'라는 단어에서 왔다. 'fetish'란 단어는 부적, 마법을 의미하는 'fetico'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과거에는 신비스러운 힘을 지닌 대상물을 의미하였고, 특히 19세기에는 성적인 힘을 의미했다. 처음 페티시즘이 사적인 공간에서 공적인 영역으로 전이된 것은 PVC 나 가죽이 패션의 주류

58) 임은혁, 앞글. p.45.

에 흡수된 1960년대에 나타났다. '고무 마스크'와 'Sex'라는 가게에서 은밀하게 팔렸던 우편 주문 의상들, 가슴위로 드러내는 PVC 브라, 수갑과 도그 칼라를 일상복으로 착용했던 실제 거리의 펑크의 등장과 함께 페티시즘은 중요한 발전을 하게 된다. 페티시적인 왜곡의 상장물은 펑크 언어의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일단 표면화되면 하위문화적인 표상에서 일반화된 외설적이고 자극적인 지표로 변화되었다. 오늘날, 페티시즘과 성적인 성향을 의미하는 S&M(sadism & masochism)의 문맥이 바뀌어서 과거에는 은폐했던 것을 이제 자랑스럽게 드러내고 있으며, 과거에 성적인 외설이라고 의심되었던 것이 이제 서구의 클럽 문화의 한 부분이 되었다.<그림20>

과거에 상대적으로 직설적이고 개인적인 일이었던 페티시즘이 이제 포스트모더니즘 조건의 다양한 외설적인 문맥에서 페티시즘은 제도화되었다. 런던에서 젊은이들은 S&M 풍의 게이 스타일을 즐겼으며, 아마추어 디자이너들은 GayTimes, Dazed&Confused 등의 영향력 있는 잡지들을 통해 디자인을 선보였다. 퍼브 스타일은 MTV를 통해 전세계로 확장되었고, 점점 몸매를 드러내는 풍으로 바뀌면서 꾸튀르에 까지 전달되었다. 이는 1991년 겨울 컬렉션에서 Thierry Mugler, Jean-Paul Gaultier 등의 디자이너에 의해 유행되었다. 퍼브는 '몸을 감싸서 숨기는' 옷을 의미했으나 스타일의 전환을 맞이하여 '몸을 과시하는' 옷으로 전개되어 새로운 섹슈얼리티의 움직임이 되었다. 퍼브는 밤, 위험, 죽음, 죄 그리고 성적 도착을 불러일으키는 검정색을 선호했다. 검정색 가죽 의상과 하얀 피부의 대조는 에로틱한 분위기를 강조하였으며, 가죽이나 고무로 만든 허리를 죄는 코르셋과 긴 장갑을 착용하였다. 또한 굽이 뾰족한 하이힐로 상대방을 밟는 기하학적인 요소가 결합되어 극단적인 성도착적 아이템이 되었다.[59]

59) 임은혁 pp.46-47

(3)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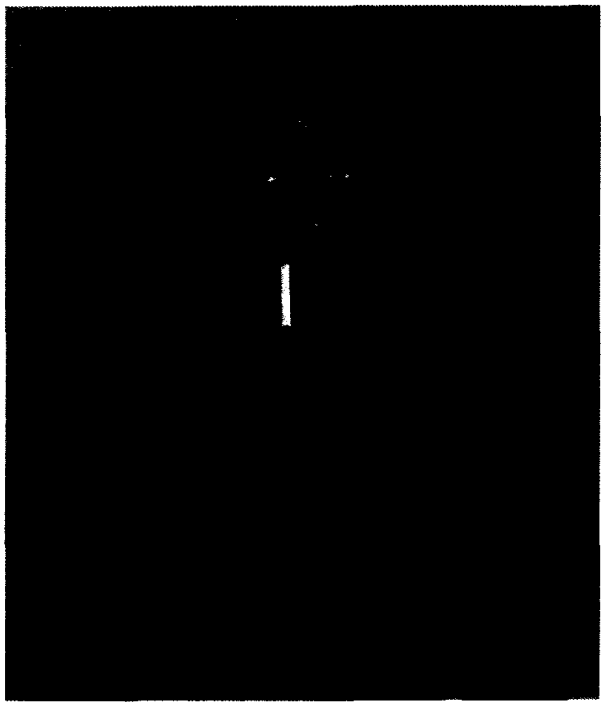
길거리나 나이트 클럽, 음악회, 축구경기장 같은 곳에 자주 가면서 고급상표로서 개인의 성공과 부를 나타내었던 캐주얼(Casual) 스타일이 있었고, 새벽까지 춤추고 즐기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던 스케이터 룩과 캐주얼 한 비치 스타일을 합친 레이버(Raver) 스타일도 있었다.[60]

그 외에도 80년대에는 디스코 댄스의 열풍으로 펄을 이용한 메이크업을 많이 볼 수 있다. 황금, 노란색 펄을 눈두덩에 발랐고, 볼터치도 펄이 들어가 있는 컬러를 발라 화려한 느낌을 더했다. 립스틱 색상도 금속과 같은 효과를 내는 여러 가지 색상이 출시되었다.[61]

---

60) 정삼호, 「1940-1990년대 Street Style의 변천과정을 통해 고찰한 Street Fashion에 관한 연구」,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제 9권, 2000, p.277.

61) 김경순 외, 앞글, p.33.



<그림15> 그레이스 존스(Grace Jones)의 기하학적 헤어스타일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22.

<그림16> 마돈나(Madonna) 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1.

<그림17> 여성의 속옷을 착용한 뉴로맨틱스 스타일
Fashions of a Decade the 1990s, p.30.

<그림18> 남성적 이미지의 Annie (Eurythmics) Lennox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22.

<그림19> 보이조지(Boy George)의 여성스러운 메이크업
www.boygeorge.wo.to

<그림20> 퍼브(Perv) 스타일의 노출적 복장
Fashion keyword 2. Look · Style, p17.

2. 메이크업에 나타난 특성

대중사회 속에서 시대의 조류를 거부하고 사회로부터의 이탈을 추구하기 위해 기존의 정상적인 스타일을 부정하며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하는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은 독특한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위문화 메이크업은 기성 가치관에 대한 무언의 시각적 저항으로서 기존 스타일에서 벗어난 파격적인 스타일을 보였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생성되었던 수많은 하위문화 스타일에서 보여졌던 메이크업의 특성을 종합해 본 결과, 1) 과장된 메이크업 2)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3) 장식적인 메이크업 4) 미래지향적인 메이크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1) 과장된 메이크업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과장된 메이크업을 하위문화에서는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파괴적이고 무질서하며 기괴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눈과 입술을 검은색으로 칠하고 있는 펑크족들의 모습이 대표적이다. 모즈 스타일 메이크업에 있어서도 눈만을 강조하여 인조 속눈썹과 마스카라를 진하게 바른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은 검은 색을 많이 사용하였지만, 흰색을 이용하여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1980년대의 보이조지와 같이 얼굴을 희게하는 게이샤 메이크업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과장된 메이크업을 할 때는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때로는 얼굴 색부터 눈, 입술을 모두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2)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

앤드로지너스(Androgynous)란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고유한 성을 자신의 성과 조화롭게 지니는 것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융합시킨 것이다. 성의 혼합 이미지는 양성적 이미지와 중성적 이미지로 설명되는데, 양성적 이미지는 남성과 여성의 이미지를 모두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중성적 이미지는 남성적 이미지와 여성적 이미지가 거의 같은 비율로 결합되어 어떠한 성도 느낄 수 없는 것을 말한다.[62]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은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메이크업으로 여성이 눈썹을 남성처럼 굵고 짙게 그리거나 여성이 본래의 얼굴에 가깝도록 내추럴하게 메이크업을 한 것을 말한다.[63] 그러나 한편에서는 어두운 색이 남성적 이미지라는 의견 때문에 블랙 메이크업이 여성들에게 도입되었다. 모즈 스타일의 눈을 검게 강조한 메이크업이나 펑크스타일의 공격적인 메이크업을 보면 느낄 수 있다. 머리카락도 짧게 잘라서 남성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1980년대의 그레이스 존스(Grace Jones)는 기하학적인 flat-top 헤어스타일과 강인한 이미지로 남성적인 느낌을 주었다.

여성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메이크업은 여성만이 아닌 남성에게도 행해지고 있으며, 남성은 메이크업을 하거나 머리를 길게 기르거나 밝은 컬러로 염색함으로써 전통적인 남성의 허세를 허물었다. 글램(Glam)이나 뉴로맨틱스(New Romantics)는 동성애자나 성도착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볼 수있다.

---

62) 김경아,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Less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9, p.39.

63) 패션신문 사전편찬팀, 『신 용어 사전』, 주간 디자인 신문, 2000, p.180.

3) 장식적인 메이크업

하위문화 에서는 기성세대의 가치관이나 미의식에 대한 반항과 도구의 의미로서 메이크업을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한 메이크업이 아니라 정신문화의 상징적인 표출로서 메이크업의 기본 개념을 파괴하게 된 것이다. 분홍, 초록, 보라색으로 염색된 각양 각색의 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은 보편성이 없이 특수성만이 존재하는 것처럼 각자의 개성적인 스타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환상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하나의 가면과 같은 장식적인 메이크업도 많이 등장하였다. 얼굴에 새, 꽃, 나비 등의 형상을 그려서 장식하였다.[64] 히피 스타일 메이크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리고 펑크 스타일 메이크업에서도 과격하고 저항적인 정신을 표출하기 위해서 팔과 몸에 문신(tattoo)을 하였다.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혐오감이 느껴지거나 거부감이 느껴지는 모습을 많이 연출하곤 했다. 문신은 에로틱한 이미지, 공격적인 이미지, 저항적인 이미지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장식적인 메이크업은 얼굴과 인체를 캔버스로 생각하여 자유로운 감각으로 행하는 일종의 아티스틱 메이크업(Artistic Make-up) 으로 단순한 형태부터 다양한 색채 배색까지 시각적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다.[65]

4) 미래지향적 메이크업

20세기를 정리하고 다가올 21세기에 대한 희망을 논하는 것은 단지 1990년대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글램 스타일 이나 뉴로맨틱스 스타일에서 사이키델릭하고, 환상적인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보여주었다. 젊은이들은 얼굴에 반짝이를 붙이거나 글리터한 재료를 사용하여 막연하고 답답한 현실세계를 잠시 잊고, 희망적인 미래를 꿈꾸고자 했던 것이다.

---

64) 김현미, 앞글, p.34.
65) 양진희, 앞글, p.48.

Ⅳ. 1990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1. 시대적 배경

1990년대는 21세기로 전환되기 직전이라는 역사적 중요성이 매우 큰 시기로써, 고도로 발달한 과학과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산업의 급진적 진보와 고도의 정보화를 이룩하고 있다. 즉, 컴퓨터라는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말미암아, 인류는 이제 신세기로의 전환점에서 첨단과학 문명과 접목된 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66] 이와 동시에 1990년대 초부터 유럽과 미국에서 경제구조의 재조정 등의 제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하여 실업률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이나 노인층과 같은 소수집단의 실업률이 특히 높은데 이와 같은 실업률의 증가는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연관이 있다.[67]

현대를 가리켜 '위기의 시대'라고 흔히들 말한다. 현대의 위기는 역사상 그 어느 시대에 있었던 위기보다도 더 격정적이고 급속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현재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 전쟁 및 경제 침체, 테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의 90년대의 패션은 세기말적 갈등과 혼돈과 함께 과거를 동경하고 회고하는 과거 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 지향적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 공존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 의한 Street Fashion의 급부상을 기점으로 과거 지향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현대 패션의 열기가 주로 젊음을 상징하

66) 김홍균, 「포스트모더니즘의 제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1.
67) 이동연, 앞글, pp.11-28.

는 디자인을 나타내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만하다.

현대문화는 젊은이들의 것이라고 할만큼 젊은이들을 제외하고 문화를 이해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음악, 미술뿐만이 아니라 패션에서도 젊은 세대들의 개성표현은 그들의 과감성, 개방성, 솔직함과 대담성 등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현대패션의 디자이너들은 90년대 현대 패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하게 되어버린 젊은이와의 접촉을 지속해 나가고, 신빙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하위문화 그룹과 Street Style을 표절하고 있는 것이다. 하위계층의 젊은 숭배자들은 남의 시선이나 관습, 규범 등을 무시하며 서서히 거리에서 그들의 영역을 넓혀 나가고 급기야는 그들만의 하위문화 패션을 세계 패션계에 등단시키게 되었다. 이러한 젊은이들에 의해 뒤흔들리고 있는 현대패션 메커니즘은 점점 더 강력한 발전으로 High Fashion에 전이되고 있다. 젊은이들의 하위문화 패션은 젊은이들의 의상과 착장법의 신선한 아이디어로 이미 대중화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언제나 청소년들에 의한 Street Fashion은 있어 왔고, 그 거리의 주인공들이 10대의 청소년이었던 것도 변함이 없으나 그 어느 때보다도 1990년대 들어서는 Street Fashion은 강하게 부상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Street Fashion중에서도 복고풍의 trend경향과 맞물려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은 현대패션에 다양한 motif를 제공해 주고 있다.[68]

1960년대 말의 자연에의 회귀와 서구문화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된 동양문화에의 관심이 1990년대에 다시 나타났고, 또한 1970년대의 경기 불황과 록 음악의 유행과 1980년대의 앤드로지너스 스타일도 1990년대 들어오면서 다시 나타났다. 이와 같이 1990년대 들어오면서 사회는 더욱 다원적이고 복합적인 양상을 띄게

68) 강은선, 앞글, pp.77-80.

되었는데, 이러한 시대 조류 속에서 패션 또한 여러 가지 룩(Look)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진다. 즉,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유행했던 하위문화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새롭게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69] 이러한 경향은 포스트모더니즘,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다원주의란, 궁극적인 가치개념을 부정하며 수직적 위계질서보다는 수평적인 다양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미술에서 목격되는 다양한 지역 양식과 개인 양식의 공존, 기존 미술의 차용과 변형, 대중매체의 형상과 방법의 수용 등 다원화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나타난다.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서 20세기 초엽의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통성, 역사성의 도입과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나타난 시도이다. 즉, 20세기 전반을 지배해 왔던 모더니즘은 국제적 보편주의, 몰 역사주의, 단순 기계미라는 이념 하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면의 욕구를 무시하여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70]

그래서 다양성, 개성이 존중된 비합리성의 추구, 전통성의 회복, 다른 시대, 문화로부터의 양식이나 이미지의 차용 등 여러 다양한 시도와 스타일이 공존하며 이는 사회 문화 전반에서 나타났다. 메이크업은 패션과 마찬가지로 에콜로지(ecology), 내추럴(natural), 글래머(glamour), 뉴트럴 누드(neutral nude), 사이버 메탈릭(cyber metallic) 등 특정한 스타일이 지배적이지 않고 과거의 모든 스타일을 자유롭게 받아들이고 다채롭게 융합하여 새로운 스타일로 표현하는 것이 현재까지 나타나는 메이크업의 특징이다.

---

69) 김영인 외, 앞글, p.274.
70) 양진희, 앞글, pp.18~20.

2. 스타일

1) 그런지와 네오 히피 (Grunge & Neo-Hippie)

80년대 말과 90년대 초반 사이에 나타난 패션 유행에 획기적인 역할을 한 그런지(Grunge) 룩 역시 젊은이들의 대명사가 된 X세대들로부터 시작된 스트리트 패션이다. 경제 불황과 높은 실업률 속에서 미래의 두려움을 안고있는 X세대들은 자신들의 불안한 현실에 대한 적대감을 그런지라는 새로운 패션으로 표출하였다. 그런지 룩은 여러 아이템이 중복되는 레이어드와 이질적인 소재의 미스 매치, 낡고 구겨지고 해진 듯한 의상으로 편안함과 자유스러움을 표현하는 획기적인 스타일이었으며 이는 종전의 모든 패션 법칙을 깨뜨리고 계층의 차별화된 복식을 거부하며 생겨난 반 모드적 경향이었다.[71]

'그런지(grunge)' 라는 말은 'grungy' 라는 속어에서 온 것으로, 이는 미국 북서부의 성장하는 도시인 시애틀의 노동자 스타일로 그런지는 미국 잡지인 'Sassy' 에서 붙여준 이름이다. 이는 대담한 레이어링과 의도적인 지저분함이 특징으로, 미국 서부에서 시작되어 뮤지션들과 서퍼들에 의해 전세계로 퍼져나갔고, 거리의 신세대들에 의해 시작되어 하류층 의복의 요소를 많이 가지고 하이패션에 깊숙이 침투한 90년대 전반의 가장 획기적인 패션으로 자리잡았다. <그림 21> 그런지는 1980년대의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동에서 시작되었으며, 그 뿌리는 도시적인 보헤미아니즘에 있다. 현실에 대해 냉소적이고 실용적인 가치관이 낳은 그런지 문화는 1960년대 히피문화의 이념과 같으며, 이들의 옷차림에서도 히피패

71) 김희남, 「현대 여성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트리트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26.

션의 부활을 느낄 수 있다. [72]

그런지룩과 더불어 60년대 히피를 연상시키는 네오 히피는 그런지보다 페미닌한 스타일이다. <그림22> 60년대 히피 테마가 과거에 대한 향수와 자연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정신적인 세계관인 것처럼 90년대의 네오 히피 스타일도 현대의 에꼴로지 테마와 일맥 상통하는 레트로 경향으로 볼 수 있다. 60년대의 히피는 반전과 반체제 평화주의로 정치적 색채를 띄고 있었고, 낡고 지저분한 반항적인 이미지였던 반면에 90년대의 히피풍은 반항적이기보다는 한결 부드러우면서도 로맨틱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73] <그림23>

90년대 후반에 에스닉한 스타일에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합친 로맨틱 히피 스타일과 보헤미안 스타일이 나왔다. 히피나 집시, 보헤미안 등이 모두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경향도 있기는 하지만, 보헤미안이라는 단어 속에는 히피나 집시와는 다른 고급스러움이 담겨 있다. 최근의 보헤미안룩은 과거 히피룩의 거친 느낌을 버리고 로맨틱한 느낌, 여성스러운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다.

2) 네오 펑크(Neo-Punk)

1990년대에는 사회 전반에 걸친 복고 무드가 음악에도 영향을 주어 1970년대의 록 음악(Rock music)이 다시 등장하였고, 그와 함께 1970년대 펑크문화가 네오 펑크라는 파격적인 스타일로 부활하게 되었다. 1990년대의 네오 펑크룩에는 1970년대의 펑크 룩의 특징이 많이 남아 있다. 징박힌 칼라의 검정가죽 쟈켓, 일부러 구멍을 내거나 slash를 준 바지와 셔츠, 체인, 안전핀, 지퍼 등의 금속장식,

72) 임은혁, 앞글, pp.50~51.
73) 양진희, 앞글, p.54.

머리를 아예 밀어 버리거나 모히칸족 머리처럼 가운데 부분만 세워서 염색하는 것 등을 볼 수 있다. <그림24> 메이크업 또한 의상 못지 않게 네오 펑크 룩의 분위기를 크게 좌우한다. 메이크업은 진한 자주색이나 어두운 회색을 이용한 그로테스크한 화장을 하거나 몸에 문신을 하곤 한다. <그림25>

네오 펑크 문화는 그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이버 펑크(Cyber Punk)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사이버 펑크란 사이버와 펑크의 합성어로서 최첨단 하이테크의 성격을 규정한 말과 사회 문화적 반항이나 이단을 나타내는 말의 융합이다. 사이버 펑크와 테크노의 차이를 본다면 그 이름이 암시하듯이 사이버 펑크는 급진적인 성향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74] 사이버 펑크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윌리엄 깁슨(William Gibson)이 1984년 뉴로맨서(Newromancer) 라는 소설을 발표하면서 부터이다. 사이버 펑크 세대는 고도 기술의 산물인 첨단 과학의 컴퓨터가 필수적인 무리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기성세대에 대한 반항심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극적인 성향 때문에 컴퓨터라는 기계문명을 이용해서 자기들만의 사회를 구축하려고 한다. 사이버 펑크의 대표적인 형상은 사이보그라고 할 수 있다. <그림26> 사이보그는 사이버네틱스와 오거니즘(organism)의 합성어로서 사이버네틱스의 원리에 따라 제작된 기계- 유기체를 의미한다. 즉, 자연적인 신체와 인공적인 기계의 결합을 말한다. 사이버 펑크족은 1970년대처럼 체인을 두르고 문신을 세기고 코, 귀, 가슴, 뺨, 팔 등 온 몸에 핀이나 고리를 걸기 위해 구멍을 내었다. <그림27> 또한 머리 위에 고도 기술을 상징하는 안테나를 달고, 목에 계산기를 걸기도 했다.[75]

---

74) 김민수, 『21세기 디자인 문화 탐사』, 교문사, 1997, p.252

75) 김영인, 이윤정, 「히피, 펑크와 네오 히피, 네오 펑크의 비교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994. pp.270-273

또 다른 네오 펑크로는 펑크와 웨스턴 룩을 혼합한 카우 펑크(Cow-Punk)와 의상보다 악세사리에 신경을 쓰는 누보 펑크(Nouveau Punk)가 있다.

1990년대에 부상한 네오 펑크(Neo-Punk) 스타일은 도전적이고 파괴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려는 점이 과거의 펑크 스타일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펑크의 반지성적이며 비현실적인 괴기스러운 감각을 전환시켜 세련된 환타지로 나타내고 있다.

3) 클럽 스타일

클러버들은 클럽, 파티, 쇼 등에서 만화의 주인공, 영화 Starwars의 캐릭터인 프린세스 레이아(Princess Leie) 등으로 분장하고 환상의 나래를 펼친다. 언더그라운드 파티는 환상을 위한 열린 포럼과 같은 갤러리가 되었다. 현실이 초현실이 되고, 겉치레의 의도를 자신과 타인에게 보이려는 역할인 퍼소나(persona)를 통해 옷을 입고 행동하면서 만화의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 클럽 현장에서의 인물들은 스타일의 공급자들에게 영감을 제고하였고 '클럽 웨어' 나 '클럽 스타일' 이라는 용어는 90년대 초반 주요한 패션의 움직임으로 대두되었다. 옷을 위한 소재로서 광택 있고 반사하는 표현의 소재들, 투명한 플라스틱에 대한 열광과 헬로 키티나 테디베어 가방 등의 유아적인 액세서리 등을 부추긴 것은 바로 클럽이었다. <그림28> 많은 클럽의 초현실주의자들은 만화는 환상의 전형이라고 믿는다. 90년대 후반 클러버들은 침울한 현실에서의 도피로 만화와 가상의 캐릭터에 빠졌는데 아마 이것은 이 세대가 디즈니에서 이제 벗어났거나, 90년대의 단순화된 패션에 질리고, Gap으로 대표되는 순응에 혐오를 느껴서 일 수도 있다. 어떤 것이 이유이던 간에 그들의 인공적 향락의 환상의 세계에 대한 충동은 사그러들기는

커녕 새로운 밀레니엄에 접어들어 더욱 진보하고 있다.[76]

이런 클러버들의 스타일은 메이크업에서도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29>

4) 기타

성도착자들의 모임인 드래그(Drag),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밀리터리 스타일(Military style), 스케이트 보딩과 롤러 스케이트를 즐기는 사람들의 스포츠 캐주얼 스타일(sports casual style)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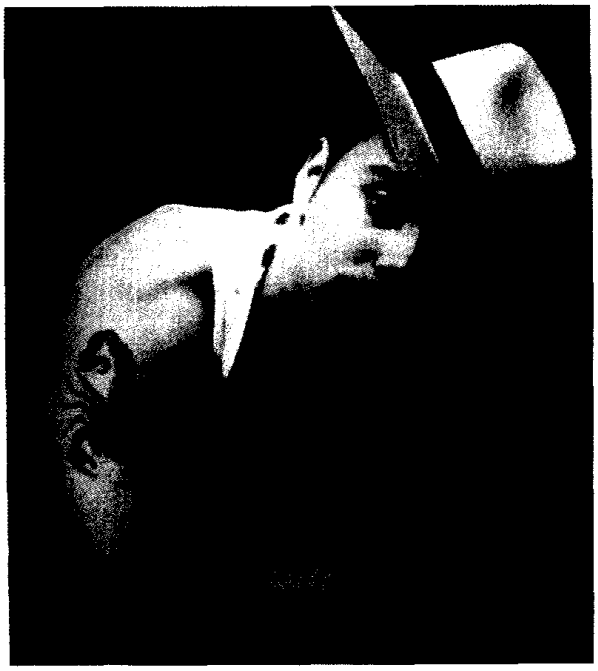
76) 임은혁, 앞글, p.65.

<그림21> 그런지 스타일의 패션
Betsey Johnson 99~20 f/w 프레타포르테

<그림22> 로맨틱한 느낌의 네오히피 스타일
Vogue Fashion Twentieth Century, p169.

<그림23> 핑크색 의상을 입은 로맨틱 히피 스타일
Vintage Style, p.154.

<그림24> 펑크풍으로 찢어진 청바지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p.26.



<그림25> 전갈 문양의 어깨 문신
Who's who 2002, p.9.

<그림26> 화이트 펄을 이용한 사이버 펑크 스타일의 메이크업과 헤어
Vogue Fashion Twentieth Century, p.226.

<그림27> 기계적인 느낌의 사이버 펑크 스타일
Who' who 2002, p,9.

<그림28> 유아적 이미지의 의상
Who' Who 2002. p.8.

<그림29> 나이트 클럽스타일
Fashions of a Decade the 1990s, p.31.

3.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 특성

1990년대 메이크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의 일반적인 특성들은 1960~1980년대에 보여주었던 스타일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기존의 사고들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들도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메이크업에서도 그대로 관찰되고 있는데, 그 현상의 근원은 후기자본주의 사회로의 발전과 문화의 중심개념이 모더니즘에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변화 하는 속에서 찾을 수 있다.[77] 포스트모더니즘은 20세기 후반을 지배하는 현상을 지칭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일반적인 용어로서 20세기 초엽의 모더니즘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전통성, 역사성의 도입과 문화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나타난 시도이다. 즉, 20세기 전반을 지배해 왔던 모더니즘은 국제적 보편주의, 몰역사주의, 단순 기계미라는 이념 하에 인간이 갖고 있는 감성적인 면의 욕구를 무시하여 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78] 포스트모더니즘 메이크업 현상은 포스트모더니즘 문화 안에서 나타나는 시, 공간적 절충주의, 다원주의적 특성들을 공유한다.

이제부터는 1990년대의 메이크업에 있어서 하위문화 스타일을 가장 잘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는 컬렉션에 기반을 두고 메이크업 스타일을 알아보고자 한다. 물론 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이 대중적으로 하는 메이크업 보다는 좀 더 과장적이고 인위적이지만 하위문화의 스타일을 가장 잘 드러내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이를 선택하여 지금부터 분석해 보고자 한다.

---

77) 이관이, 「샤넬콜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31
78) 양진희, 앞글, pp.18-19

1) 에콜로지(Ecology) 메이크업

현대인들의 자연회귀본능에 바탕을 둔 편안함과 지속적인 에콜로지 풍의 영향으로 메이크업도 부드럽고 섬세한 이미지의 컬러들이 인기를 얻었다. 에콜로지에 대한 관심은 모든 컬러에 영향을 미쳐 경기회복의 활력소로써 밝고 섬세한 이미지의 컬러가 증가했다. 자연에 대한 재인식으로 에스닉하고 내추럴한 컬러들이 주목을 끌었다. 메이크업도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내추럴한 색조가 유행했다. 1990년대의 그런지와 네오히피 스타일의 대표적인 메이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히피 스타일 메이크업보다는 많이 부드럽고 로맨틱한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피부표현은 밝고 투명하게, 눈화장은 파스텔 계열의 색상으로 화사하게 양쪽 볼에는 발그스름하게 혈색이 도는 정도의 불터치, 눈썹은 자연스러운 둥근형, 입술은 붉은색 계열 그리고 장난끼 어려보이는 주근깨 등이 대표적인 메이크업 룩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림30>은 대표적인 에콜로지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눈과 볼은 브라운 계열로 하고, 입술도 연한 브라운 계열을 사용하여 내추럴한 이미지를 풍기고있다.

<그림31>은 구릿빛 건강한 피부에 연한 브라운 쉐도우를 발라서 꾸미지 않은 것 같은 건강미를 느끼게 한다. 머리에는 꽃 장식을 하여 자유분방한 자연미를 느끼게 한다.

<그림32>는 브론즈 빛의 윤기 있는 피부에 골드 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여 활력 있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했다.

<그림33>은 밝고 흰 피부에 복숭아색 블러셔와 붉은 색 립스틱을 사용하여 로맨틱한 느낌을 주고있다. 머리는 자연스럽게 웨이브를 만들어서 늘어뜨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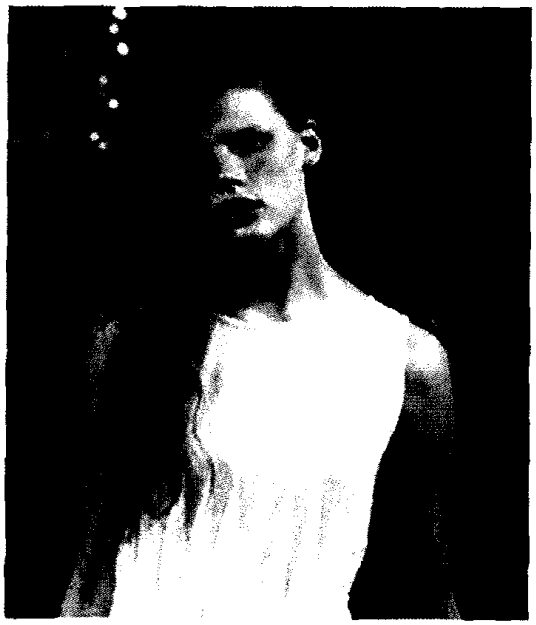
<그림34>는 자연스러운 피부색에 눈, 볼, 입술을 핑크 한가지 색으로 화사함이 느껴지게 표현하였다. 머리는 정리가 덜 된 듯 부시시하게 틀어 올려서 자유분방한 느낌을 주고 있다.

<그림35>는 눈은 파스텔 계통의 하늘색 쉐도우로, 입술은 살구 색 립글로스로 표현하였다. 머리에는 꽃을 달고 꿈을 꾸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있다.

<그림 30> 자연스러운 네오히피 메이크업
Etro '00 a/w 프레타포르테

<그림 31> 머리에 꽃 장식한 헤어스타일
Jean Paul Gautier '98 프레타포르테

<그림 32> 미래적 이미지의 메이크업
Givenchy '97 s/s 오뜨꾸띄르



<그림 33> 로맨틱한 느낌의 메이크업
Boyd '01 s/s 프레타포르테

<그림 34> 핑크빛 로맨틱 메이크업
Paul Smith '00 a/w 프레타포르테

<그림 35> 머리에 꽃을 단 사랑스러운 이미지
Thierry Mugler '99 s/s 프레타포르테

2) 에스닉(Ethnic)메이크업

지역적이고 토속적인 스타일을 옹호하는 에스닉 메이크업(ethnic make-up)의 유행을 들 수 있다. 경제 여건이 향상되고 교통 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문화와의 신속한 교류로 동, 서양의 접목과 인류는 하나이며 지구촌이라는 세계관이 작용하였고, 국제화시대로써 다른 문화권의 가치가 유입되고 수용되어 메이크업의 가치 규범도 다양해져서 민속적인 에스닉 풍이 본격적으로 유행된 것이다. 특히 동양에의 호기심과 동방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동양적인 화장기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79]

과거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면서 서양인들은 그들이 체험하지 못한 동양권 민속 문화에 대한 호기심들에서 이집트, 아프리카, 인도, 중국, 일본, 몽고, 인디언, 회교국가 등 세계 다양한 민속적 취향을 받아들여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는 초월적 감성을 표현한다. 에스닉 (ethnic)의 사전적 의미는 '민족의, 민속의' 란 뜻으로 특정 민족의 양식이나 스타일을 의미한다. '인류학적'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이기도하다. 민속적 이미지는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의상과 민속 고유염색, 직물, 패턴, 자수, 악세서리 등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하는 것이 특징으로 토속적이고 소박한 느낌을 준다. 컬러는 매우 다양하여 비비드 컬러나 콘트라스트 배색이 많고 천연염료에 의한 거칠고 무거운 느낌이 특징적이다. 민속풍의 이미지에는 동양(orientalism), 이국풍(exotic), 열대(tropical), 포크로어(folklore) 등의 분위기를 내는 메이크업이 포함된다.

<그림36>은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 스타일이다. 희고 창백한 피부표현과 눈꼬리를 올린 아이라인과 빨간 입술이 특징적이다.

---

79) 양진희, 앞글, pp.63-64.

<그림37>은 중국의 경극에서 모티브를 얻은 것으로 블랙으로 눈썹과 쉐도우를 표현하고, 레드 계열로 블러셔를 한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38>은 아메리카 인디언 스타일로 눈만 그레이 계열로 표현하고, 내추럴한 피부표현을 한 원시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이다.

<그림39>는 클레오파트라를 연상시키는 메이크업으로 짙고 푸른 기운의 강렬한 아이메이크업과 선을 살린 가는 눈썹, 길게 뺀 아이라인이 인상적이다.

<그림40>은 아프리카 원주민을 떠오르게 하는 메이크업이다. 맨 얼굴에 하이라이트 부분만 살짝 광택처리를 하여 초자연적인 모습을 나타내고있다.

<그림41>은 모로코의 전통적인 의식 분장에서 영감을 얻어 얼굴을 다양한 민속적 무늬로 장식하고 머리는 진흙과 혼합하여 땋았다.

<그림36> 일본의 가부키 스타일
Christian Dior '00 a/w 오뜨꾸띄르

<그림37> 중국 경극 스타일
John Galliano '98 a/w 프레타포르테

<그림38> 아메리카 인디언 스타일
Christian Dior '98 a/w 오뜨꾸띄르

<그림39> 클레오파트라를 연상시키는 메이크업
John Galliano '97 a/w 프레타포르테

<그림40> 아프리카 원주민 스타일
Christian Dior '00 a/w 오뜨꾸띄르

<그림41> 전통 모로코 스타일
Givenchy '97 a/w 프레타포르테

3) 유희적 메이크업

유희성이란 '해방과 자유의 감정, 유희 충동의 발산으로 고전주의적 경향에 힘입어 나타나며 일상규칙의 위반, 이질적 요소의 도입, 무지, 외설, 하락, 강조, 변형, 모순, 부조화를 통해 보는 이에게 놀라움, 쾌감, 우월감을 느끼게 해서 웃음을 자아내는 특성'을 말한다.[80] 유희로서의 예술의 미학은 긴장의 갑작스런 소멸과 의외성으로 웃음을 자아내는 해학성을 띠고 있으며 오락적인 카타르시스의 기능과 현실 도피의 의미가 내재되어있다.[81] 클럽 스타일의 만화적인 의상에 맞물려서 메이크업도 독특한 개성을 나타내고 있다.

메이크업에서는 얼굴의 조형요소를 무시함으로써 존재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여 심각한 의미들이 사라진 재미거리를 준다. 또한 기존의 정형화되고 완벽함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감을 주며, 고상하고 세련된 이미지보다는 저속한 이미지, 촌스럽고 유치한 이미지를 나타낸다.

어른 세계의 경직되고 긴장된 역할에서 벗어나 어린 시절에 대한 향수로서 동심의 세계와 환상을 추구하면서 사회적 해방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은 해방의 욕구가 메이크업을 통해 표현되기도 하며, 기존의 고정관념을 깨는 의외성도 찾아볼 수 있다.

<그림42>는 얼굴에 색조를 사용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그린 듯한 검정색 별 모양을 그려서 웃음을 자아낸다.

<그림43>은 볼을 발그스름하게 하고 주근깨를 찍은 후에, 종이를 이용하여 꽃잎모양을 만들어서 눈썹에 붙이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느낌이 들도록 연출하고

80) 하지수, 현대패션에 표현되는 유희성, 복식, 22호, 1994, p.75.
81) 엄숙희, 김문숙, 『현대복식의 패러다임-아방가르드의 특성을 중심으로』, 경춘사, 2000

있다.

<그림44>는 얼굴 면을 레터링하고 끈을 사용하여 얼굴의 윤곽을 살리고, 나머지는 신문지를 오려 붙여서 유아적인 느낌을 나타낸 것이 재미있다.

<그림45>는 피카소의 그림을 연상하게 하는 메이크업으로 노랑 빨강의 원색적인 느낌과 면과 선을 이용하여 얼굴의 선을 살려서 대칭적인 구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42> 유아적인 이미지의 메이크업
Givenchy '00 a/w 프레타포르테

<그림 38> 꽃잎을 이용한 사랑스러운 이미지
John Galliano '00 a/w 프레타포르테

<그림44> 꼴라쥬 메이크업
John Galliano '00 s/s 프레타포르테

<그림45> 피카소 그림 같은 메이크업
Christian Dior '00 s/s 오뜨꾸뛰르

4) 미래적 메이크업

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공통된 주제들 중 하나이다. 21세기를 향한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메이크업이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이버 테크노 메이크업은 자신의 개성을 그대로 대변하여 음악, 기계, 자연이 믹싱되어 모든 장르에서 자유로움을 표출하는 것이다. 청동, 기계 같은 차가움과 화려함을 동시에 내포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형태로 오묘한 분위기를 내고있다.[82] 이러한 미래 지향적 관심은 최첨단 문화 즉, 사이버 혹은 테크노 등의 접두어로 시작되는 특징적 문화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테크노적 이미지, 메탈릭한 소재 외에 신소재, 무채색이나 강렬한 원색,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패턴의 사용에 있어 무한히 다양해진 첨단의 감성을 보여주는 것이다.[83]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골드와 실버 글리터, 그리고 다양한 색상의 펄을 사용하여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과거의 글램 스타일이 다시 나오고, 사이버 펑크 스타일도 영향을 주어서 메이크업도 미래적인 느낌이 나타난 것이다. 현란한 색상으로 메이크업을 한 남, 녀를 나이트 클럽에서 볼 수가 있었고, 컬렉션에서도 응용되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과거의 글램 스타일보다도 더욱 장식적이고 미래적인 글리터, 글로시 재료를 많이 사용하여 미래적인 감성을 표현한 것도 볼 수 있었다.

<그림46>은 크림 타입의 골드 펄 새도우를 얼굴의 양옆에 두껍게 펴 바르고 입술 및 턱 부분에도 가볍게 터치한 것으로 마치 가면을 쓴 듯한 그로테스크한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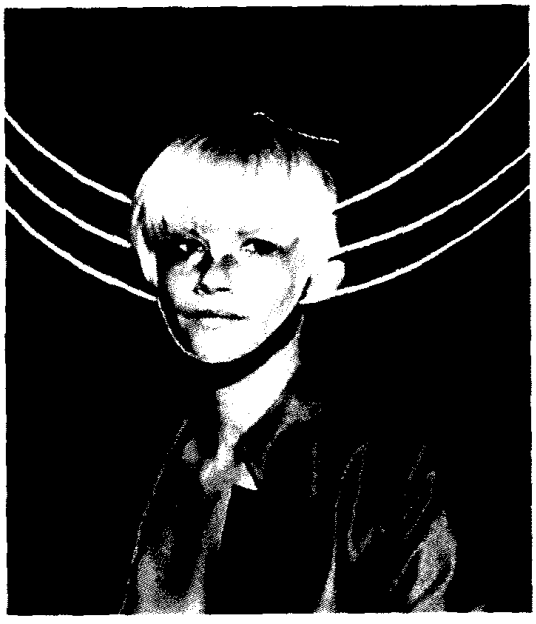
---

82) 박은경, 「사이버 시대 패션에 관한 고찰」, 안양과학대학교 논문집 22, p.472.
83) 최은지, 앞글, p.63.

<그림47>은 광택의 차가운 이미지로 언더라인이 강조된 메이크업이다. 코와 눈 밑을 중심으로 연출된 강한 라인을 사용하였고, 그 라인을 중심으로 그라데이션과 반짝임의 만남이 독특한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그림48>은 눈썹 위에 반짝이는 큐빅을 붙여서 글래머러스한 이미지를 나타내고있다.

<그림46> 펄 느낌을 강조한 메이크업
Christian Dior '00 a/w 프레타포르테



<그림47> 은색 펄을 이용한 미래적인 이미지
Alexander Mcqueen '97 s/s 프레타포르테

<그림48> 큐빅을 붙인 미래적인 이미지
Thierry Mugler '97 a/w 오뜨꾸뛰르

5) 세기말적 메이크업

20세기를 마감하는 세기말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기괴한 메이크업이 선을 보였다. 기존의 정상적인 형식을 파괴하는 해체주의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적 의미의 근원을 파괴하고 현 상황의 불확실성 혹은 불확정성 및 불안을 그대로 인정함으로써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세기말의 불안감과 위기의식이 실체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왜곡시키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로테스크하고 혐오스러운 느낌을 주는 모든 메이크업을 말한다. 이런 세기말에는 애매모호한, 기이하고, 믿을 수도 없는 현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로테스크한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84] 클레이버러(Clayborough)는 그의 책 『영문학에서의 그로테스크』에서 18세기 초엽의 그로테스크의 일반적 의미에 대해 형용사로 '우스꽝스러운', '뒤틍그러진', '부자연스러운', 명사로는 '부조리', '자연의 왜곡',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현대에 와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주로 부조화, 희극적인 것과 끔찍스러운 것, 비정상성, 지나침과 과장의 의미로 인식되고 있다. 전통적인 패션 메이크업에서의 정형화된 메이크업과는 달리 혐오스럽고 반항적이고 끔직스럽고 괴기감을 형성하는 이미지등을 표현하는 메이크업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그로테스크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은 일종의 반 미학적인 '추의 미'를 추구함으로써 또다른 미적인 쾌감을 주고 있다.[85]

<그림49>는 눈에 아이마스크를 쓴 것처럼 표현하였는데 검정, 그린과 레드의

84) 강연경,「보나벤투라(Bonaventura)의 야경(Nachtwachen)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1999, p.7

85) Philip Thomason, 김영무 역, 「그로테스크(The Grotesque)」,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 pp.15~16

강한 색의 대비로 위협적인 느낌과 함께 환상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다. 눈을 과장되게 강조하고 있다.

<그림50>은 인간과 야수가 합쳐진 듯한 이미지를 표현하여 악마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현대 도시 사람들의 지나친 과밀 상태와 긴장감 속에서 야기되는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림51>은 눈에 붉은 크림 쉐도우로 넓게 펴 바른 후, 눈 위, 아래로 검은 라인을 그려서 괴기감을 느끼게 한다.

<그림52>는 머리에 인형의 머리를 얹고, 뾰족한 바늘 같은 것으로 장식을 하여 끔찍한 느낌이 들게 하고있다. 게다가 눈에서는 검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 소름이 돋는 듯 하다.

<그림53>은 천으로 얼굴을 감싸서 얼굴의 형태가 뭉그러진 듯한 괴기스럽고, 파격적인 느낌을 주고있다. 사람에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연출하여 기괴하고 비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54>는 펑크의 대표적인 헤어스타일인 모히칸족 스타일로 머리를 연출하여 폭주족 같은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 눈은 검은 잉크가 퍼진 것과 같이 방사형으로 연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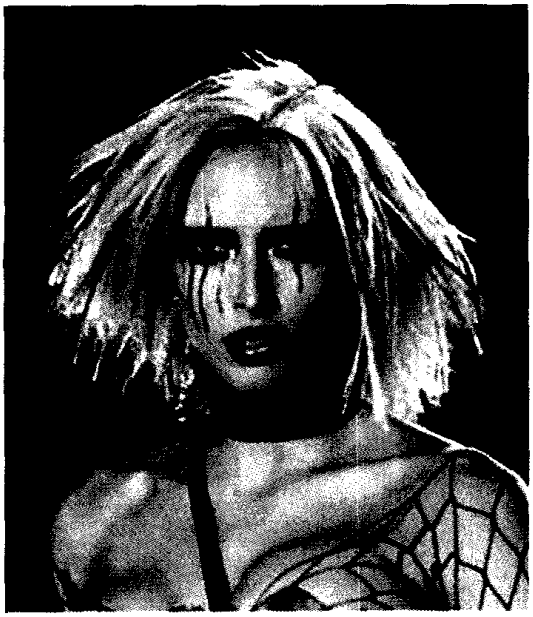
펑크의 대표적인 아이템인 타투(tattoo)를 이용하여 개성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림55>는 얼굴에 레이스를 붙이고 그 둘레를 보라색과 검붉은 새도우로 처리한 것이 특이하다. 이와 함께 입술을 중심으로 물감이 타고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주어 괴기스러운 느낌도 나타난다.

<그림56>은 장미 타투(tattoo)를 가슴부분에 싸인펜으로 그려서 성적 욕구를 자극시키고 에로틱한 느낌을 자아내도록 하고 있다. 손톱은 검은 색 에나멜을 칠해서 퇴폐적인 느낌을 준다.

<그림49> 색의 대비를 이용한 공격적 이미지
Givenchy '97 a/w 오뜨꾸띄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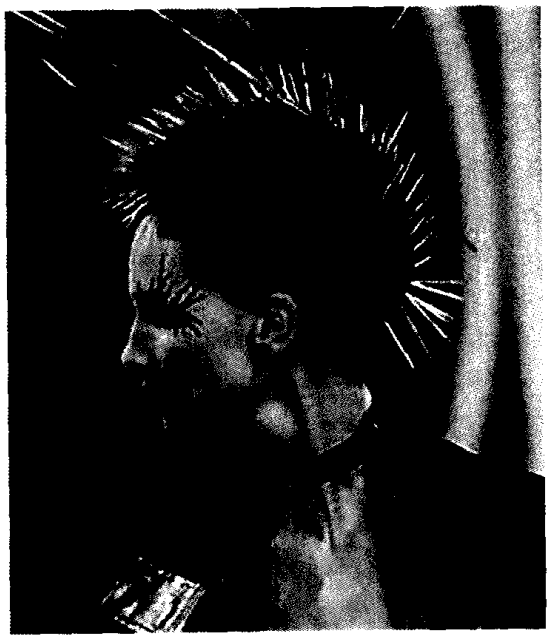
<그림50> 야수와 같은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
Alexander Mcqueen '97 a/w 프레타포르테



<그림51> 괴기감을 형성하는 눈 화장
Christian Dior '01 s/s 오뜨꾸띄르

<그림52> 끔찍함을 느끼게 하는 메이크업
John Galliano '00 s/s 프레타포르테

<그림53> 괴기스러운 얼굴 이미지
Alexander Mcqueen '96 a/w 프레타포르테



<그림54> 모히칸족의 헤어스타일
John Galliano '00 s/s 프레타포르테

<그림55> 레이스를 얼굴에 붙인 메이크업
John Galliano '00 s/s 프레타포르테

<그림56> 장미 문신의 에로틱한 이미지
Romeo Gigli '96 s/s 프레타포르테

이제까지 컬렉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에 대해 알아보았다. 1990년대 메이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정석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레트로(Retro), 화려하고 다채로운 포크로어(Folklore), 미래 지향적인 퓨처리즘(Futurism) 등 이질적인 모습이 공존하고 과거와 미래가 융합되어 퓨전(Fusion)의 형태로 나타나고있다. 과거의 순수와 열정으로의 회귀본능에 90년대 말의 색채와 개성을 가미하여 모던하고 로맨틱하면서도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Ⅳ. 결 론

하위문화는 2차대전 이후 자본주의의 성숙과 분열로부터 산출된 모순적 산물이다. 하위문화는 노동계층의 생활의 위기와 부모들이 간직했던 전통문화의 정체성 사이에서 방황하는 그들 자녀들의 불만과 공포와 자유가 담겨진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청년문화이다. 이러한 하위문화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볼 때 전쟁 및 경제 침체, 테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90년대에 와서는 그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90년대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은 세기말적 갈등과 혼돈과 함께 과거를 동경하고 회고하는 과거 지향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미래 지향적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 공존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60~1980년대에 나타난 다양한 하위문화 스타일들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대에는 모즈(Mods)와 히피(Hippie), 록커(Rocker), 스킨헤드(Skin Head)가 대표적인 하위문화 스타일이었다.

1970년대에는 글램(Glam), 펑크(Punk), 스케이터(Skater) 스타일이 있었다.

1980년대에는 뉴 로맨틱스(New Romantics), 퍼브(Perv), 캐주얼(Casual), 레이버(Raver) 스타일이 있었다.

위와 같은 하위문화 스타일의 메이크업을 보면 몇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일반적인 뷰티메이크업에서 볼 수 없는 과장된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 모즈(Mods) 스타일 메이크업은 지나치게 눈을 강조했고, 펑크 스타일 메이크업은 검은 색을 이용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메이크업을 하였다. 얼굴의 일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많았다.

둘째,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지 않는 앤드로지너스 메이크업을 볼 수 있었다. 남성은 머리를 길게 기르고, 여성보다도 더 현란한 메이크업을 하였다. 반대로 여성은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을 거의 하지 않고, 남성 같은 강인한 몸매를만들기 위해 노력하곤 했다.

셋째, 장식적인 메이크업을 볼 수 있었다. 히피(Hippie) 스타일 메이크업에서는 새, 동물, 나비 등을 모티브로 하는 장식적인 메이크업과 바디 페인팅이 선보였다. 그리고 펑크에서도 몸에 문신을 하여 그들만의 정신세계와 저항의식을 표출하였다.

넷째, 미래지향적인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 하위문화 스타일이 대부분 록 뮤직(Rock Music)을 하는 가수나, 나이트 클럽에 다니는 사람들에 의해 유행했기 때문에 큐빅이나 반짝이를 사용하여 현란한 모습을 연출하였다.

1990년대에 와서는 동시에 여러 가지 하위문화 스타일들이 다시 유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스타일에 현대적인 감각을 첨가하여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고 있다.

첫째, 과거의 히피스타일이 그런지(Grunge)와 네오 히피(Neo-Hippie) 라는 새로운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의 반항적이고 저항적이던 과거의 이미지에서 한결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표현되고있다. 에콜로지(ecology) 현상으로 메이크업은 자연스러워지고, 여성스러워졌다.

둘째, 포스트모더니즘의 다원주의와 세계화에 힘입어 과거의 히피 스타일이 에스닉하고 민속적인 메이크업으로 나타났다. 동양적인 스타일, 이국적인 스타일, 아프리카 스타일 등 다양한 스타일이 선을 보이고 있다.

셋째, 과거의 클럽에서 보여주던 스타일들이 유아적이고 유치한 발상으로 다시

보여지고 있다. 답답한 현실을 잠시라도 잊고, 어린아이와 같은 감성으로 돌아가고자하는 마음에 만화적인 캐릭터의 옷을 입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얼굴에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단순한 메이크업도 표현하였다.

넷째, 글램(Glam), 뉴로맨틱스(New Romantics), 퍼브(Perv) 등에서 보여졌던 환상적인 메이크업이 90년대에 와서는 클럽스타일(Club Style)이나 드래그(Drag) 스타일에서 새롭게 보여졌다. 메이크업은 글리터와 글로시 재료를 많이 사용하여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꿈과 희망을 걸고 있는 메시지를 표현하였다. 다양한 색상의 펄을 사용하여 인위적이고, 기계적인 느낌의 사이버 메이크업으로도 표현되었다.

다섯째, 세기말에 느끼는 두렵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마음으로 비정상적이고 인위적인 메이크업이 다시 보여졌다. 그러나 네오 펑크(Neo-Punk) 스타일 메이크업은 과거와 다르게 도전적이고 파괴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미를 창조하고자 했다. 펑크의 비정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스타일을 세련된 감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상의 메이크업에서 살펴보면 1990년대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메이크업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절충주의와 다원주의의 영향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여러가지 요소를 혼합한 절충주의 경향을 볼 수 있다.

둘째,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자연주의적인 경향을 들 수 있다.

셋째, 국제화 시대에 따른 에스닉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에로틱하고 여성미를 강조하는 로맨틱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정상적인 형식을 파괴하는 해체주의 성향을 나타낸다.

여섯째, 미래적인 이미지를 강조하는 사이버 메이크업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메이크업의 유행적 특성을 보면 메이크업에 나타나는 패턴 및 색상은 일정시간을 지나 다시 재해석되어 또 다른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양한 개성이 공존하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도 개성들을 하나로 모으는 트렌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오늘날 절대 유행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세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전혀 생소하거나 이질적인 스타일이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종전에 유행한 것을 각기 다른 스타일로 소생시키려는 노하우가 요구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학위논문〉

간문자, 「저항패션이 모패션으로 전이된 현상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5.

강은선, 「청소년 하위문화 패션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5.

김경아,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Less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김은아, 「글램 스타일의 디자인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김은영,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그로테스크적 특성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김창남, 「하위문화집단의 대중문화 실천에 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

김현미, 「현대 패션에 나타난 해체주의 메이크업 특성」,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김희남, 「현대 여성 하이패션에 나타난 스트리트패션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선빈, 「히피 패션이 복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조형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박신희, 「1990년대 해외 컬렉션과 국내컬렉션의 패션 트렌드 비교연구」, 서울

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안은경, 「국내 복고주의 패션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엄소희, 「PUNK FASHION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유순경,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복고현상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관이, 「샤넬 콜렉션에 나타난 포스트모더니즘」, 경성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이명진, 「1990년대 남성복에 재현된 모즈 스타일(Mods style)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이정아, 「존 갈리아노의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임은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하위문화 스타일」,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2.

장미숙,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네오 아방가르드 경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8.

천지영,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00.

최은지,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한수연, 「1960년대의 의상에 나타난 미와 에로티시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3.

〈학술지논문〉

강연경, 「보나벤투라(Bonaventura)의 야경(Nachtwachen)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1999.

고현진, 「빈티지 패션의 미적 가치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Vol. 25(2), 2001.

김문숙, 김현주, 「하위문화를 중심으로 현대패션에 나타난 크로스오버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논문집, Vol. 8, 1997.

김영인, 이윤정, 「히피, 펑크와 네오 히피, 네오 펑크의 비교연구」, 한성대학교 논문집, 1994.

박은경, 「사이버 시대 패션에 관한 고찰』, 안양과학대학교 논문집 제22호.

양미경, 「하위문화맥락에서 본 패션형태의 변화1」, 한국 의상디자인 학회지 제2권 2호, 2000.

양미경, 「하위문화맥락에서 본 패션형태의 변화2」, 한국 의상디자인 학회지 제4권 1호, 2001.

정삼호, 「1940년~1990년대 Street Style의 변천과정을 통해 고찰한 Street Fashion에 관한 연구」,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제9권, 2000.

조옥례, 「1960년대 Mods Look에 관한 연구」, 신구대학교 논문집 제20호, 1998.

〈단행본〉

김경순, 김미애, 박성희, 오인영, 『Make-up II』, 청구문화사, 2000.

김영희, 김효정, 류지원, 박미경, 박정신, 서란숙, 황선순, 『토털 메이크업』, 정문각, 2001.

김종복, 『Fashion Keyword 2. Look*Style』, 시대, 2002.

김희숙, 『화장문화사』, 청구문화사, 2000.

김희숙, 이은임, 『메이크업과 패션』, 수문사, 1996.

이동연, 『서태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문학과학사, 1994.

이선영, 『1960년대 서구 하위문화의 싸이키델릭 이미지II』, 미술세계, 1997.

천지연, 노선옥, 이귀영, 이영애, 『FACES IN MAKE UP』, 청구문화사, 2001.

패션신문 사전편찬팀, 『신 용어 사전』, 주간 디자인 신문, 2000.

한명숙, 『마뀌아쥬 예술』, 청구문화사, 1999.

〈외국서적〉

Antonio Cordani, 『XANNI KAOS!』, Mauro Foroni, 1993.

COLIN MCDOWELL, 『GALIIANO』, RIZZOLI NEW YORK, 1997.

CHARLOTTE SEELING, 『FASHION the century of the designer』, KONEMANN, 2000.

Dick hebdige, 『Subculture,the meaning of style』, London: Rpitledge, 1979.

Elane Feldman. 『FASHION OF A DECADE THE 1990s』, B.T.Batsford Ltd, 1992.

Jacqueline Herald. 『FASHION OF A DECADE THE 1970s』, B.T.Batsford Ltd, 1992.

Linda Watson, 『Vogue Fashion Twentieth Century』, Calton Books Ltd, 1999.

Richard Martin, 『Fashion and Surrealism』, Thames and Hudson Ltd, 1988.

Tiffozny Dubin, Ann E. Berman, 『Vintage Style』, Harper Collins, 1998.

Vicky Carnegy. 『FASHION OF A DECADE THE 1980s』, B.T.Batsford Ltd, 1990.

Yvonne Connikie, 『FASHION OF A DECADE THE 1960s』, B.T.Batsford Ltd, 1990.

『Who's Who』, Sportswear international, 2002.

〈인터넷 자료〉

http://www.myfashion.co.kr

http://www.firstview.com

ABSTRACT

A Study on Subculture Style found in Contemporary Make-up

Min, Won Kyung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Street Fashion is rising powerfully. Subculture style which appeared in gear with the trend tendency of restoration style out of the street fashion of youths is offering diverse motifs to modern makeup also. Subculture is the concept to implicate the meaning to be the phenomenon seceded from the ruling culture or the culture of central class of socie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try to compare as to how different the make up of subculture style which appeared in past 1960s and 1970s and to study how it was reflected in collection. Out of various subculture styles, the makeup of styles of Mods, Hippie, Glam and Punk which appeared in 1960s and 1970s may be regarded as the feature to appear most frequently in 1990s.

The makeup of Mods style emphasized eyes by attaching eyelash thickly below and above eyes and drawing eyeliner thickly and produced lips

sensuously by applying dim pink-pearl lipstick.

As for the makeup of Hippie style, body painting to draw drawings or to color on body was in vogue as the symbolic expression of spiritual culture, and decorative makeup to express fantastic world appeared.

As for glam style, men applied thick makeup and wore gorgeous dress and its ornaments and showed long-hair style.

As for the makeup of punk style, they applied around eyes thickly, emphasized features with the black lip expression, and wore the dress and its ornaments to give displeasure with disgusting tattoo. Punk made hair seem to be horned by fixing their hair stiffly after dyeing their hair pink, orange and green and making it sharp, or they made Mohican hair-style.

This style didn't follow the past as it was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but they appeared by being interpreted newly.

First, as for new mods style, exaggerated makeup became very feminine and romantic. In hair style also, naturally wavy style could be seen much. But, cyber makbeup to show gloomy feeling or enable us to fee coming future appeared due to decadent influence.

Second, neo-hippie style changed from the past style of old and shabby resistant image to soft and high-class feeling. Makeup became natural and feminine as ecology phenomenon. And, aesthetic makeup appeared by the influence of globalization and pluralism.

Third, the makeup of new glam style expressed futuristic sensitivity by using decorative and futuristic glittering and glossy materials much. The

make of artificial and mechanical feeling appeared as base, and feminine side and decadent element are appearing with mixture on it.

Fourth, the makeup of neo-punk style is showing as refined fantasy by creating new beauty and converting charmingly even challenging and destructive atmosphere unlike past punk style.

To examine from above makeup, it can be seen that the makeup of subculture style which appeared in 1990s is being expressed more diversely in the situation that decadent chaos and future expectation mixed. And, it can be seen that the makeup of subculture style is acting as the creative inspiration to enable modern makeup to grope for new trial and direction.